

4

미술사와 미술비평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 기초** 우리나라 미술 탐험
- 심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4-2 미술 감상과 비평

- 기초**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 심화** 보는 미술, 읽는 미술

대단원
년경의
추진

대단원 '미술사와 미술 비평'은 교육 과정의 '미술사'와 '미술 비평' 감상 영역을 위해 설정되었다. 미술은 시대와 지역의 사교를 반영하면서 변천하고, 각 나라들은 시대별로 고유한 미술을 전개하며 문화적인 전통을 이루어 왔다. 그러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감성, 지성, 감정이 상호 작용하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보고, 읽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미술사와 미술 비평의 상이한 접근은 이러한 총체적인 감상 활동을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감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문화적 전통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이 지닌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기,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등의 활동으로 미술 비평의 과정과 방법을 익혀 미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고 평가해 보도록 한다.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중단원의 개관

감상 영역의 중영역 '미술사'를 반영한 '재미있는 미술 여행' 중단원에서는 미술 작품을 문화적·역사적 유산의 의미로서 파악하여 이러한 맥락에서 감상하고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3, 4학년의 '미술의 시대적·지역적 배경에 흥미와 관심 갖기'에 이어서, 5, 6학년에서는 '미술의 시대적·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서 시대와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찾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 미술의 가치와 의미, 나아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기초 '우리나라 미술 탐험'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미술의 종류별 변천 과정 및 문화적 전통의 계승에 대해 학습한다.

심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단원에서는 미술사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된 현대 미술을 감상하며 미술이 시대와 지역의 생활 모습이나 사교를 반영하면서 변천해 왔음을 이해한다.

중단원의 목표

- ★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의 특징을 이해한다.
- ★ 도자 공예, 회화, 건축 등 각 영역별로 시대별 미술 작품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그것이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야기한다.
- ★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작품을 시대별로 비교하고, 문화적 전통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 과거 미술에 비해 달라진 현대 미술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특징을 조사하며 감상해 본다.

중단원의 구성

■ 체험 ▲ 표현 ● 감상

수준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소단원의 제재명
기초	우리나라 미술 탐험	74~77	166~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나들이 ● 시대별 미술 작품 전시회 꾸미기 ●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
심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78~81	182~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하기 ● 다양한 모습의 현대 미술 감상하기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우리나라 미술 탐험

기초

소단원의 개관

기초 '우리나라 미술 탐험' 단원은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전통 미술의 종류별 변천 과정 및 문화적 전통의 계승에 대해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전통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전통 미술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우선 지역의 문화유산을 찾아 감상하고 특징을 찾아본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시대별 전통 미술 작품을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의 사회·문화와 연결하여 감상하고,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조사하여 전시회를 기획하는 활동을 한다. 또한,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우리 전통 미술의 종류별 흐름과 특징을 알고 전통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소단원의 목표

-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 작품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에 대해 안다.
- ▲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적인 미술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회를 꾸미고 감상한다.
-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통해 문화적 전통의 흐름을 안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문화유산 나들이	74	166~169	●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작품을 감상하며 그 시대의 미술의 특징 살펴보기	4
감상	시대별 미술 작품 전시회 꾸미기	75	170~172	●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적인 미술 작품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수집하기 ● 분류한 작품으로 전시회를 꾸미고 감상하기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	76~77	173~179	● 시대별 작품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전통 미술이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찾아 이야기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을 알아보고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기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과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과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해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과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과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우리나라 미술 탐험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 전통문화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각 나라들은 시대별로 고유한 미술을 전개하며 문화적인 전통을 이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과 변천 과정은 어떠할까요?

문화유산 나들이

★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특징을 알아봅시다.

- 경주에서 볼 수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예 활동 경주 문화 관광 누리집 <http://guide.gyeongju.go.kr>에서 문화재와 역사를 조사해 보세요.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교과서에서는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 대해 소개하였으나, 우리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시대를 적용하여 학습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 또한, 사회 교과와 문화재 관련 수업이나 역사 수업, 혹은 수학여행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과 구성을 할 수도 있다.

교수 · 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각 지역의 미술 문화유산 알아보기

- T:** 우리나라에는 시대별 수도를 중심으로 여러 유적지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는지 말해 볼까요?
- S:** 공주나 부여에 가면 백제 시대의 유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공주 무령왕릉이 유명해요.
- S:** 서울에서도 백제 유적으로 석촌동 돌무지무덤, 몽촌토성, 풍납토성 등을 볼 수 있어요.
- S:** 경복궁과 덕수궁은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궁궐이에요.
- S:** 경주는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수도로, 여러 가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 T:** 오늘은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2 수집한 통일 신라 시대 미술 자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 T:** 그동안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 작품이나 문화유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 보기로 했지요? 어떤 자료들을 어떤 방법으로 수집하여 가져왔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 S:** 가족들과 박물관에 갔을 때 받아 온 안내 자료를 가져왔어요.
- S:** 저는 경주를 안내하는 인터넷 정보에서 통일 신라 시대의 작품들을 찾아 인쇄해 왔어요.
- S:** 불국사 기념엽서를 가지고 왔어요.
- S:** 관광 안내 책자를 보고 경주의 왕릉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귀금속과 장신구들의 사진을 수집해 왔어요.
- T:**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가지고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 대해 공부하기로 해요.

▶ 전개하기

1 통일 신라의 시대 · 사회적 배경과 미술의 특징 이해하기

- T:** 통일 신라는 어떤 종교를 통해 백성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자 힘썼나요?
- S:** 불교를 중요시하였어요.
- S:** 중앙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경주를 중심

으로 한 귀족 문화와 불교문화가 확산되었어요.

2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 살펴보기

- ①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을 알아본다.
- T:**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S:** 종교 생활에서 나온 불교 미술이 발달했어요.
- S:**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 미술이 발달했어요.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 알아보기

전반적인 특징

통일 신라의 예술은 귀족 생활의 여유와 멋, 당과 서역 미술의 영향 등으로 삼국 시대 미술의 소박한 티를 벗어나 보다 세련된 미의식을 나타내었다.

특히 통일 신라 중기의 예술은 조형 미술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부분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이나 종교 생활에서 나온 불교 미술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종교적인 색채가 미술에 강하게 나타나는 시대였다.

무덤 출토 유물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 방법이 유행하였으며, 고분 양식은 흙으로 쌓아 올린 봉토 주위에 돌레들을 두르고, 그 위에 십이지신상을 새기는 새로운 기법이 가미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러한 양식은 이후 고려와 조선의 왕릉에까지 계승되었다.

불교문화의 확산과 함께, 무덤 속에 화려한 유물이나 순금 제품을 대량으로 부장하던 삼국 시대의 풍습은 점차 사라지고 화장 용기로서 도장무늬 토기(印花文土器)나 토용 등 흙으로 만든 유물과 간단한 금속 제품이 주로 제작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인 도장무늬 토기는 이전 시기의 삼각형과 원형 무늬를 긋는 방식에서, 무늬를 새긴 도장을 찍어 장식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유행하게 된 양식이다.

불교 미술

통일 신라는 우리나라 불교 미술의 전성기로서 삼국 통일 이후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면서 불교문화가 더욱 융성하였다. 고구려, 백제 조각의 전통을 흡수하면서 당나라뿐만 아니라 서역 및 인도 미술과의 직간접적인 접촉과 교섭을 통해 국제적인 안목을 지니기 시작했으며, 그 바탕 위에 이전 시대의 조형 원리를 더욱 발전시켜 세련되고 사실적이면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향한 불교 조각의 세계를 개척하였다.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보다 심화되면서 여러 종파가 나타났고, 이러한 환경과 조건 아래 새로운 조형의 기준과 방법을 정립함은 물론 기술의 진보를 가져왔다. 그 결과 8세기에 이르자 삼국 시대 불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정면성과 인습에 얽매인 추상적 표현, 과도한 상징성이 점차 사라지고 균형과 조화에 바탕을 둔 이상적인 미를 구현하게 되었다.

건축

통일 신라 시대에도 궁성이 건축되었으나, 규모와 배치 상태 등은 오늘날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에는 별궁과 임금의 놀이터 등도 만들어졌는데, 안압지는 그 대표적인 유적이다. 안압지는 인공으로 만든 연못으로서, 연못 가운데에 산을 만들어 각종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를 길렀으며, 못의 독 전체를 돌로 튼튼하게 쌓아 임해전을 지었다. 이것은 임금의 연회 장소인 포석정의 곡선미와 더불어 당시 귀족 건축물의 화려함을 보여 준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로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다.

3 통일 신라 시대 대표 작품 살펴보기

- ① 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 작품을 알아본다.
- T:** 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미술 작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S:** 건축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요.
- S:** 불국사에는 유명한 다보탑과 불국사 3층 석탑도 있어요.
- S:** 크고 웅장하면서 화려한 문양과 조각 기법의 성덕대왕신종도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 S:** 용 얼굴 무늬 기와 혹은 도깨비 문양 기와라 불리는 기와들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 S:** 그림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 게 있나요?
- T:** 솔거가 그린 경주 황룡사의 '노송도'는 너무나 사실적이어서 종종 새들이 날아들다가 부딪혀 죽었다는 설화로 유명한데, 지금은 기록상으로만 전해지고 있어요.
- ② 불교 건축과 조각 및 유물에 대해 살펴본다.
- ③ 공예에 대해 살펴본다.
- ④ 회화 및 서예에 대해 살펴본다.
- 통일 신라 시대의 회화는 다른 분야의 미술과 마찬가지로 당나라와의 빈번한 교섭을 통해 궁정 취미의 인물화와 청록 산수화(靑綠山水畵), 그리고 불교의 융성에 따른 불교 회화가 활발히 제작되고 유행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이 거의 없다. 다만 기록상으로 경주 황룡사의 '노송도(老松圖)', 분황사의 '관음보살상(觀音菩薩像)', 진주 단속사의 '유마거사상(維摩居士像)'을 그린 솔거와 흥륜사의 '보현보살상(普賢菩薩像)'을 그린 승려 화가 정화(靖和) · 홍계(弘繼), 그리고 당나라에서 활약했던 장군 김충의(金忠義)의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특히, 황룡사에 그린 노송에는 종종 새들이 날아들다가 부딪혀 죽었다는 설화가 유명하다.

체험 문화유산 나들이

교과서 74쪽

수업 목표	• 우리 지역(경주-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한다.
평가 기준	• 우리 지역(경주-통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그 시대 미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연구 보고서법
준비물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한국 미술사 연대표 • 학생: 미술 작품 자료, 필기도구

지도상의 유의점

- 수업 2~3주 전에 미리 우리 지역(예: 경주-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 작품 및 문화유산 자료 수집을 과제로 제시하고, 작품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나 그 시대의 사회 · 문화적 배경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도록 지도한다.
- 작품집, 미술 서적, 엽서, 신문, 누리집 정보 등 다양한

- 서예에서는 김생·요극일 등이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김생은 신품 4현의 한 사람으로, 고려 시대에 그의 글씨를 모아서 새긴 집자 비문이 오늘날까지 전해 온다.

▶ 정리하기

1 학습 내용 정리하기

- ① 통일 신라 시대의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확인한다.
- T:** 지금까지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 대해 공부해 보았어요. 통일 신라 시대는 역사적으로 어떤 업적을 이루었나요?
- S:**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하여 삼국 통일을 이루었어요.
- S:**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재를 많이 남겼어요.
- ②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을 요약한다.
- T:**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 S:** 불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문화 유적과 미술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 S:** 귀족 생활의 여유,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세련되고 귀족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2 차시 학습 내용 안내하기

- T:** 오늘 통일 신라 시대의 미술에 대해 공부한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에 대해 알아보고 전시회를 꾸며볼 거예요.

불국사(건축/통일 신라 시대)

경주 토함산에 자리 잡은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짓기 시작하여, 해공왕 10년(774)에 완성하였다. 이후 조선 선조 26년(1593)에 일본의 침입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석조물과 기단만 남은 것을 조선 시대에 일부 복원하였고, 이후 극락전, 자하문, 범영루 등 일부 건물만이 그 명맥을 이어오다가 1969년에서 1973년에 걸친 발굴 조사 뒤 복원을 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경내에는 통일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다보탑과, 석가탑으로 불리는 불국사 3층 석탑, 자하문으로 오르는 청운·백운교, 극락전으로 오르는 연화교·칠보교가 국보로 지정·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당시 신라 사람들의 돌을 다루는 훌륭한 솜씨를 엿볼 수 있게 해 준다.

다보탑과 불국사 3층 석탑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석탑으로, 높이도 10.4m로 같다. 사찰 내의 대웅전과 자하문 사이의 돌 동서쪽에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데, 동쪽 탑이 다

보탑이다. 다보탑은 특수한 형태의 탑을, 석가탑은 우리나라의 일반형 석탑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두 탑을 같은 위치에 세운 이유는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현재의 부처인 석가여래가 설법할 때 옆에서 옳다고 증명한다는 “법화경”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탑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다보탑(석탑/높이: 10.4m/통일 신라 시대/국보 제 20호)

석가탑을 보면 2단의 기단 위에 세운 3층탑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다보탑은 그 층수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열십자 모양 평면의 기단에는 사방에 돌계단을 마련하고, 8각형의 탑신과 그 주위로 네모난 난간을 둘러렸다.

참신한 발상으로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산만하지 않게 표현한 뛰어난 작품으로, 4각, 8각, 원을 한 탑에서 짜임새 있게 구성한 점, 각 부분의 길이·너비·두께를 일정하게 통일시킨 점 등은 8세기 통일 신라 시대 미술의 정수를 보여 준다.

불국사 3층 석탑(석탑/높이: 10.4m/통일 신라 시대/국보 제 21호)

탑이 건립된 시기는 불국사가 창건된 통일 신라 경덕왕 10년(751)으로 추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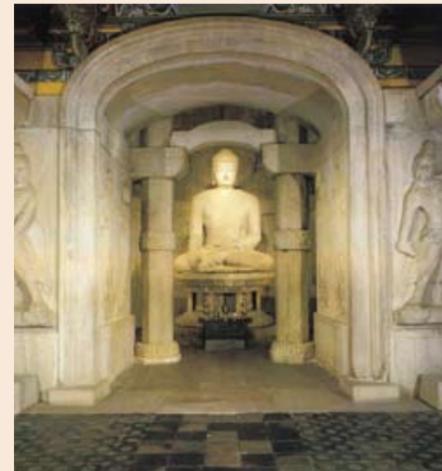
목조 건축을 본떠서 위·아래층 기단의 모서리마다 돌을 깎아 기둥 모양을 만들어 놓았으며, 지붕돌의 모서리들은 모두 치켜 올려져 있어서 탑 전체에 경쾌하게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더한다.

탑 주위로 둘러놓은 주춧돌 모양의 돌에는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신성한 곳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1966년 도굴꾼들에게 훼손되었다가 해체 수리 작업을 한 후 탑을 완전하게 복원하면서 2층 탑신의 몸돌 앞면에서 사각형 공간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사리 용기들과 유물들이 들어 있었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다. 이것은 닥나무 종이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국립 경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탑은 ‘무명탑(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석가탑을 만든 백제의 석공 아사달을 찾아 신라의 서울 서라벌에 온 아사달이 남편을 만나지 못한 채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슬픈 전설에서 유래하고 있다.

석굴암 석굴(화강석/높이: 9.3m/751년/통일 신라 시대/국보 제 24호)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1)에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해공왕 10년(774)에 완성되었으며,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다. 토함산 중턱에 백색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공 석굴을 만들고, 내부 공간에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 기법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원숙한 조각 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본존불, 얼굴과 온몸이 화려하게 조각된 십일면관을 보살상, 웅맹스러운 인왕상, 위엄 있는 자태의 사천왕상,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각종 보살상, 저마다 개성 있는 몸짓의 나한상 등 이곳의 모든 조각품들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석굴암 석굴은 통일 신라 불교 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종교, 예술, 수리, 기하학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이상적인 사례이다.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성덕 대왕 신종(청동/높이: 3.75m/771년/통일 신라 시대/국보 제 29호)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큰 종으로 높이 3.75m, 입지름 2.27m, 두께 11~25cm이며, 무게는 1997년 국립 경주 박물관에서 정밀 실측한 결과 18.9톤으로 확인되었다.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해공왕이 771년에 완성하여 성덕 대왕 신종이라고 불렀다. 처음에 봉덕사에 달았다고 해서 봉덕사종이라고도 하며, 아기를 시주하여 넣었다는 전설로 아기의 울음소리를 뽀뽀 에밀레종이라고도 한다.

종 몸체에는 상하에 넓은 띠를 둘러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고, 종의 어깨 밑으로는 네 군데에 연꽃 모양으로 돌출된 아홉 개의 유두를 사각형의 유곽이 둘러싸고 있다. 유곽 아래로 두 쌍의 비천상이 있고, 그 사이에는 종을 치는 부분인 당좌가 연꽃 모양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몸체 두 곳에는 종에 대한 내력이 새겨져 있다.

몸통에 남아 있는 1,000여 자의 명문은 문장뿐만 아니라 새긴 수법도 뛰어나며, 천 삼백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손상되지 않고 전해오고 있다.

용 얼굴 무늬 기와(기와/너비: 35.8cm/통일 신라 시대)

용 얼굴 무늬 기와는 추녀마루 등의 끝에 부착하여 건물의 장엄함을 추구했던 기와로, 삼국 시대부터 제작되기 시작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전성기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 특유의 벽사적(辟邪的: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 의미를 지닌 뛰어난 조형의 공예 조각 분야를 구축하였다. 이는 동양에서도 특히 통일 신라의 독자적인 분야로, 원숙한 입체 표현과 빈틈없는 좌우대칭을 보여주는 걸작이 많이 남아 있다.

삼국 시대의 용 얼굴 무늬 기와는 강건하면서 고졸한 느낌이었지만,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실적인 완성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는 표면에 유약을 칠한 기와도 다량으로 제작되었다.



시대별 미술 작품 전시회 꾸미기

★ 우리나라의 시대별 대표적인 미술 작품을 수집하여 전시회를 꾸미고 감상해 봅시다.

3학년 2학기 92쪽

- 여러 미술 작품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의 시대로 분류해 보세요.
- 시대별 미술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 모둠별로 전시회를 꾸미 보세요.

전시공간 만들기



1 색지 4장을 반으로 접어, 한쪽 면을 서로 마주 보게 붙인다.

2 작품을 붙이고, 바닥 종이 중앙에 전시관을 세워 완성한다.



감상 시대별 미술 작품 전시회 꾸미기

교과서 75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수집하여 시대별로 전시회를 꾸며 감상한다. •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미술 작품을 수집하여 시대별로 전시회를 꾸며 감상할 수 있는가? • 우리나라의 시대별 작품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기 평가, 감상문, 연구 보고서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한국 미술사 연대표 • 학생: 미술 작품 자료, 필기도구, 도화지, 색지, 풀, 가위, 자, 사인펜



지도상의 유의점

- 수업 2~3주 전에 미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의 자료 수집과 관련 정보 조사를 과제로 제시한다.
- 작품집, 미술 서적, 엽서, 신문, 누리집 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사회 교과와 문화재 관련 수업이나 역사 수업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과 구성을 할 수도 있다.
- 전시 기획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과정,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회를 꾸밀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모둠 활동을 통해 서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수집한 우리나라의 미술 자료 소개하기

T: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술 작품이나 문화유산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 보았나요?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 왔나요?

S: 저는 고구려 벽화 사진들을 가져 왔어요.

S: 고려 시대 청자요.

S: 조선 시대 풍속화를 준비했어요.

2 학습 내용 안내하기

T: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집해 온 자료들을 가지고 시대별로 분류하여 전시회를 꾸며볼 거예요.

▶ 전개하기

1 각 시대별 미술 작품 분류하기

㉠ 시대별 작품 분류 및 전시 작품을 선정한다.

- 모둠원별로 담당할 시대를 협의한다.
-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분류한다.
- 전시할 작품을 선정한다.

㉡ 작품 관련 조사를 한다.

- 선정된 전시 작품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정리한다.
- 자신이 담당할 시대에 해당하는 자료 이외의 것은 다른 모둠원에게 제공하고 서로 협력하여 좋은 전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2 전시회 꾸미기

㉠ 전시 공간을 구상한다.

- 어떤 형태로 전시 공간을 꾸밀지 함께 협의·구상한다.
- 주어진 전시 공간에 미술 작품을 어떻게 배치하여 전시할 것인지 협의한다.
- 협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 전시 공간을 제작한다.

-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시 공간을 제작한다.

• 전시관의 기능을 잘 고려하여 아름답게 공간을 꾸민다.

• 입체 작품을 전시할 전시대를 만든다.

㉢ 작품을 전시한다.

• 감상하기 좋은 위치와 동선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작품을 배치한다.

• 제목과 작품 설명을 만들어 붙인다.

㉣ 전시 홍보물을 제작한다.

• 포스터, 초대장, 자료집 등 전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하여 제작해 본다.

3 전시 작품 감상하기

㉠ 완성된 전시 모형과 전시 작품을 감상한다.

㉡ 서로의 잘된 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 전시를 통해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고 감상문을 써 본다.

4 시대별 미술 작품 이야기하기

㉠ 고구려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T: 고구려 미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무용총 수렵도와 무용도, 각저총 씨름도, 강서대묘 사신도 등 훌륭한 고분 벽화가 많이 남아 있어요.

T: 고구려 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고구려인들의 씩씩한 기상이 미술에도 반영되어 장엄하고 웅대한 미술로 발전했어요.

㉡ 백제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T: 백제의 미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백제 금동 대향로, 정림사지 5층 석탑, 미륵사지 석탑, 서산 마애 삼존 불상 등이 있어요.

S: 그림으로는 아좌태자가 그렸다는 쇼토쿠태자상이 일본에 남아 있어요.

T: 네, 그래요. 백제는 일본의 문화와 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일본의 여러 지역에 백제 관련 문화재나 기록이 보존되어 있어요. 백제 미술의 특징은 어떤가요?

S: 온유하고 우아하며 부드럽고 세련된 멋을 지닌 미술 작품들을 많이 남겼어요.

㉢ 신라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T: 신라의 미술에 대하여 알아보을까요?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금속 공예품과 토기, 유리 제품들이 있어요.

S: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관총 금관, 금령총에서 나온 기마인물형 주자 등을 들 수 있어요.

S: 천문 관측대인 첨성대도 있어요.

S: 그림으로는 천마도와 기마 인물모양 토기가 있어요.

T: 신라 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정교하고 화려로운 금속 공예와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발달했어요.

㉣ 고려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T: 고려 시대의 미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그림으로는 서구방의 '수월관음도', 혜허의 '양류 관음도' 등이 있어요.

S: 경천사지 10층 석탑, 관축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도 유명해요.

S: 다양한 종류의 청자와 청동 은입사 포류수금무늬 정병이 있어요.

T: 고려 미술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도자기, 칠기, 금속 공예 등을 중심으로 섬세하고 정교한 귀족적인 미술 문화가 발달했어요.

S: 불교를 중시하여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불화를 비롯한 다양한 불교 미술이 발달했어요.

㉣ 조선 미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T: 조선 시대의 미술 작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S: 그림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암의 '모견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김명국의 '달마도' 등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회화가 발달하여 민화, 초상화와 더불어 김홍도, 신윤복의 풍속화도 많이 남아 있어요.

S: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백자 달 항아리 등 백자가 유명해요.

S: 건축물로는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 승례문, 수원 화성 등이 있어요.

T: 조선 시대 미술의 특징은 어떤가요?

S: 겸손과 소박함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발전하여 종교 미술보다는 일반 회화나 실용적인 목공예, 도자 공예가 발달했어요.

S: 특히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백자가 유명한데, 유교를 중시함으로써 검약과 절제, 단순함과 간결함을 특징으로 해요. 그 결과, 장식보다는 형태에 치중하였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멀리했어요.

▶ 정리하기

1 학습 내용 정리하기

T: 우리나라의 시대별 미술 작품을 분류하고 전시회를 꾸며 봤어요. 수업을 통해 어떤 점을 알게 되었나요?

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 많이 있지만 이번 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전시해 보니 우리 전통 미술에 대한 더 많은 지식들을 알 수 있었어요.

S: 각각의 미술 작품뿐만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시대

적인 특성까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S: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볼 땐 간단했는데, 막상 전시회를 직접 꾸며 보니 준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전시회를 준비하는 분들의 작업 내용을 체험하고 그분들의 수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2 차시 학습 내용 안내하기

①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의 각 시대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을 공예, 회화, 건축별로 나누어 살펴볼 것임을 알린다.

무용총 수렵도(회벽에 채색/삼국 시대-고구려)



중국 동북 지린 성 지안 현 통거우에 있는 무용총 내부 '무용도'의 건너편 벽면에 그려진 그림으로, 달리는 말 위에서 사냥에 열중하고 있는 고구려인들의 활달하고 힘찬 기상을 보여 준다. 큰 나무를 사이에 두고 오른쪽에는 소가 끄는 마차가 대기하는 장면이, 왼쪽에는 사냥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깃털 달린 모자를 쓴 5명의 말 탄 사람들이 활시위를 당기며 사슴과 호랑이들을 쫓고 있다. 산과 산 사이를 쫓고 쫓기는 사람과 동물들이 매우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고구려인들의 기개를 한껏 발휘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배경의 단순화가 오히려 사냥 장면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도록 한다.

금동 대향로(금동/높이: 61.8cm/삼국 시대-백제/국보 제287호)

부여 능산리 절터 부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제작 시기는 6~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기운찬 용이 받치고 있는 몸체 위에 산 모양의 뚜껑이 덮여 있고, 정상에는 봉황이 날개를 활짝 펴고 서 있다. 몸체와 뚜껑은 분리되어 있으며 뚜껑 곳곳의 구멍을 통해 향 연기가 피어오르도록 되어 있다. 연꽃잎으로



구성된 몸체에는 사람, 새, 동물, 물고기 등이 표현되어 있다.

백제 금속 공예의 뛰어난 주조 기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음양설과 불교의 연화화생관(蓮花花生觀), 도교의 신선 사상 등이 융합된 특이한 형태의 조형물이다.

천마총 금관(금판, 옥/높이: 32.5cm/삼국 시대-신라/국보 제188호)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시대 전형적인 금관으로, 제작 시기는 6~7세기경으로 추정된다. 문헌 사람이 쓴 채로 발견되었는데, 머리 위에 두르는 넓은 띠 앞면 위에는 산자형 모양이 3줄, 뒷면에는 사슴뿔 모양이 2줄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산자형은 4단을 이루며 끝은 모두 꽃봉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금관 전체에는

원형 금판과 곡옥을 달아 장식하였고, 금실을 꼬아 늘어뜨리고 금판 장식을 촘촘히 연결하기도 하였다. 밑으로는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드리개(수식) 2가닥이 달려 있다. 금관 안에 쓰는 내관이나 관을 쓰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모두 널(관) 밖에서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다.

청자 상감 운학무늬 매병(청자/높이: 42.1cm/고려 시대/국보 제68호)

1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화려함이나 크기 면에서 고려 시대 상감 청자 매병 중 가장 세련되고 대표적인 작품이다. 흰칠하고 매끄러운 허반신의 유선이 아름다우며 위풍당당한 형태와 규모를 자랑한다. 넓은 표면을 가득 장식한 운학무늬 표현이 아름다우며, 몸체에는 6단으로 나누어 흑백 쌍선으로 상감한 동심원 무늬를 어긋나게 배치하고 있다. 그 속에 각각 한 마리씩 상감한 운학은 위를 향해서 날고 있고, 원 밖의 학들은 모두 땅을 향해서 나는 모습을 정돈되게 표현하였다.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

★ 우리의 전통 미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살펴봅시다.

도자 공예

-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 시대별 도자 공예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현대에서 도자가 어떻게 사용되나요?



▲ 빗살무늬 토기(흙/높이: 38.1cm/신석기 시대) ▲ 토우장식 옥 항아리(흙/높이: 34cm/삼국 시대-신라) ▲ 청자 칠보 투각 항로(청자/높이: 15.3cm/고려 시대)

회화

- 시대별 회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우리나라 전통 회화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전통 회화는 현대에서 어떻게 계승되고 있나요?



▲ 무용도(무용총 벽화/삼국 시대-고구려) ▲ 서구방(고려/1323년경) 수월관음도(메달레 채색/165.5x101.5cm/1329년 작)

건축

-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이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 부석사 무량수전(고려 시대/경상북도 영주시) ▲ 경매관 청자 '향원정'(조선 시대/서울특별시 종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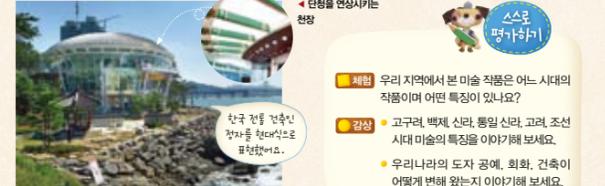
더하기 활동 우리 전통 미술의 종류별 흐름과 특징을 조사해 보고, 전통의 의미에 대하여 토론해 보세요.



▲ 분청사기 모란무늬 관병(분청사기/높이: 21cm/조선 전기) ▲ 달항아리(백자/높이: 43.8cm/조선 중기) ▲ 이음신(한국/1958-) 현대의 생활 도자기(도자기/가사)



▲ 정선(조선/1676-1759) 계상정경도(종이에 먹/25.3x39.8cm/1746년 작) ▲ 김기환(한국/1913-2001) 신사(비단재 수묵 채색/65x120cm/1976년 작)



▲ 누리마루 APEC 하우스(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05년)

감상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

교과서 76~77쪽

수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 공예, 회화, 건축 등 각 영역별로 시대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그 변천 과정을 알아본다. •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이 현대에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전통적인 특징이 현대에 계승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찰법, 연구 보고서법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한국 미술사 연대표 • 학생: 미술 작품 자료, 필기 도구

지도상의 유의점

- 교과서 수록 작품에 대한 사전 조사를 과제로 제시한다.
-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의 특징을 발견하고, 작품을 시대적·문화적 배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통 미술은 단순히 옛것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승·발전되고 있음을 알도록 한다.
- 전통 미술은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전시 학습 내용 상기하기

- T:** 지난 시간에는 각 시대별로 우리나라 미술 작품을 분류하여 전시회를 꾸며 보았지요? 어떤 점들을 알 수 있었나요?
- S:**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의 종류가 매우 많았어요.
- S:** 시대별로 분류해서 전시해 보니 그 시대 미술의 전체적인 특징까지 알 수 있었어요.

2 학습 내용 안내하기

- T:** 오늘은 각 시대별 미술 작품들을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영역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고, 시대적인 변천 과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1 도자 공예의 변천 과정 살펴보기

㉠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를 감상한다.

T: 신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토기입니다. 여기에서 토기란 흙으로 빚어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 곧바로 불에 구운 그릇을 말해요. 잘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위가 넓고, 아래가 뾰족한 모양인데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해요.

S: 흙에다 반쯤 묻어 놓고 사용했다고 해요.

T: 그 당시에는 땅을 파고 그릇을 묻어서 고정한 후에 곡식이나 다른 식량을 담기도 하고, 불을 지피 음식물을 익히기도 했어요.

T: 어떤 무늬가 새겨져 있나요?

S: 위의 입구 쪽에 여러 줄의 무늬가 둘러져 있고, 몸통 부분에는 짧은 직선들이 비스듬하게 많이 그어져 있어요.

T: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그릇에 무늬를 그려 넣었네요. 어떻게 무늬를 새겨 넣었을까요?

S: 도구를 사용하여 같은 모양으로 반복해서 긁거나 찍어서 무늬를 만든 것 같아요.

T: 맞아요. 이런 무늬의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토기에 왜 이런 무늬를 넣었을까요?

S: 토기를 구울 때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S: 무지개무늬는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S: 생선 뼈 무늬는 고기를 많이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새겼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 신라 시대 '토우장식 목 항아리'를 감상한다.

T: 신라 시대에 사용했던 토기예요. 잘 살펴보고 그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반짝거리는 광택이 없고 진흙의 느낌이 그대로 나요.

S: 여러 가지 무늬가 규칙적으로 찍혀 있어요.

S: 항아리 목과 어깨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모양의 장식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T: 장식들은 어떤 모양인가요?

S: 여러 형태의 사람과 새, 거북, 물고기도 있고, 개구리를 물고 있는 뱀도 있어요.

T: 네, 여기에서 사람의 형태 등을 보고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추측할 수 있듯이, 당대의 유물이나 미술 작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 고려 시대의 '청자 칠보 투각 향로'를 감상한다.

T: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청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

작품은 '청자 칠보 투각 향로'라는 이름의 고려청자에요. 형태와 색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S: 초록빛이 나요.

S: 광택이 있고 화려해요.

S: 꽃잎 같은 것들을 흙으로 섬세하게 만들어 붙인 것 같아요.

T: 어떤 용도로 사용했을까요?

S: 향불을 피우는 도구로 사용한 것 같아요. 향냄새가 퍼지도록 구멍을 많이 뚫었어요.

T: 주로 누가 사용하였을까요?

S: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게,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신분이 높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했을 것 같아요.

T: 그렇다면 고려청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 시대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S: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을 것 같아요.

S: 화려한 도자기들이 유행했나 봐요.

T: 맞아요. 고려 시대에는 귀족 문화가 발달하여 화려하고 아름다운 청자를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 수준을 높이 평가받고 있어요.

㉣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 모란무늬 편병'을 감상한다.

T: 조선 시대의 분청사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분청사기는 고려 시대 말의 청자 기법이 조선 시대로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형되어 만들어진 거예요.

S: 큰 붓으로 덧칠한 것 같이 색이 얼룩이 져 있어요.

S: 꽃문양이 청자처럼 섬세하지는 않아요.

S: 도자기가 납작해서 신기해요.

T: 분청사기 편병은 앞뒤 양면을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편평한 양면에는 모란 넝쿨무늬가 음각 기법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굽과 몸통 아랫부분을 제외하고 전체를 흰색 흙으로 칠해서 나타냈답니다.

㉤ 조선 시대의 백자 '달 항아리'를 감상한다.

T: 조선 시대에 유행했던 백자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 작품은 '달 항아리'라는 조선백자예요. 형태와 색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S: 아주 깨끗한 하얗이에요. 어떤 무늬나 티도 없어요.

S: 달처럼 생겨서 이름이 달 항아리인 것 같아요.

T: 청자가 주로 고려 시대에 유행한 데 비해, 백자는 조선 시대에 주로 만들어졌어요. 백자는 형태나 무늬가 매우 단순한 편인데, 이는 조선 시대에 겸손함과 소박함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그런 성격들이 예술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이처

럼 한 시대의 사회와 문화, 예술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게 된답니다.

㉥ 현대 도자 공예의 모습과 쓰임에 대해 알아본다.

T: 지금까지 각 시대에 따라 도자 공예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도자 공예가 어떻게 만들어져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S: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S: 손님들이 집에 놀러 오시면 도자기로 된 주전자와 찻잔에 차를 대접해요.

S: 얼마 전에 가족들이랑 이천 도자기 축제에 다녀왔는데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았어요. 도자기는 그릇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T: 네, 오늘날에는 도자기를 미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감상하기도 하지만 생활 속에서 생활 도자기로 다양하게 활용하기도 해요.

T: 그릇뿐만 아니라 건물의 일부, 혹은 실내를 장식하거나 브로치, 장신구를 만들어 쓰는 등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서 전통에 현대의 디자인과 기능을 조화시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 이렇게 전통이란 옛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계승되고 있답니다.

2 회화의 변천 과정 살펴보기

㉠ 고구려 고분 벽화 '무용총 무용도'를 감상한다.

T: 이번에는 각 시대별 그림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그림을 본 적이 있나요?

S: 책에서 봤는데, 고구려 시대 무덤에 그려진 벽화예요.

T: 네, 맞아요. 무덤에 그려진 그림을 '고분 벽화'라고 하는데요, 특히 고구려 고분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왜 무덤 속에 그림을 그렸을까요?

S: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렸을 거예요.

T: 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살기를 꿈꾸며 그렸다고 해요.

T: 그림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엇을 하는 모습을 그렸나요?

S: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T: 네, 그래서 이 그림의 이름을 '무용총 무용도'라고 붙였대요. 옷이나 장신구, 배경 등 이런 그림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잘 알 수 있어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 고려 불화 '수월관음도'를 감상한다.

T: 고려 시대 불화인 '수월관음도'라는 그림이에요. 불화란 무엇일까요?

S: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에요.

T: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림이 많이 그려졌어요.

T: 그림을 잘 살펴봅시다.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요?

S: 종이가 아닌 것 같아요.

T: 네, 비단으로 된 천에 그린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뿐만 아니라 비단에도 많이 그렸다고 해요. 박물관에 가 보면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T: 전체적인 느낌이 어떤가요?

S: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S: 화려한 분위기와 우아한 선이 아름다워요.

S: 인자한 표정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 정선의 '계상정거도'를 감상한다.

T: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그림이네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나요?

S: 잘 몰랐었는데, 천 원짜리 뒷면에 있는 그림이네요. 신기해요.

T: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들에는 여러 가지 유명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조선 시대 화가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그림이에요. 무엇을 그린 것인가요?

S: 풍경을 그린 산수화예요.

S: 물가에 있는 산과 절벽, 나무, 집도 그려져 있어요.

T: 네, 이것은 실제 풍경을 보고 그린 산수화인데, 진경산수화라고 하며 조선 시대 후기부터 특히 유행했어요.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그려 오던 관념 속의 풍경 그림을 본떠 그리곤 했는데, 이 시기부터 실제 장소를 둘러보고 직접 관찰하며 그리는 화가들이 늘어났지요. 정선은 대표적인 진경산수 화가예요.

T: 다른 지폐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봅시다.

㉣ 김기창의 '산사'를 감상한다.

T: 이 그림은 김기창이란 화가가 그린 '산사'라는 산수 풍경화예요. 어떤 재료를 썼나요?

S: 화선지에 수묵과 물감으로 그렸어요.

T: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단순하게 그렸고, 색깔도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칠했어요.

S: 빠른 속도로 호탕하게 그린 것 같아요.
T: 김기창 화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 한국화가 예요. 전통 산수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신의 느낌과 주관을 살려 독창적인 화풍을 만들어 냈어요. 이 화가의 그림은 전통 산수화를 색다른 방식으로, 해학적으로 변형시켰다 하여 '바보 산수'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어요.

3 건축의 변천 과정 살펴보기

㉠ 부석사 '무량수전'을 감상한다.
T: 이번에는 과거와 현대의 건축에 대해 살펴볼까요? 사진은 고려 시대 때 지어진 부석사 '무량수전'이에요. 무엇을 위한 건축물일까요?
S: 절의 일부본인 것 같아요.
T: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S: 지금은 주로 콘크리트와 시멘트 등으로 만든 건물이지만, 옛날에는 주로 나무로 지었고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어요.
T: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예요.
 ㉡ 경북궁 정자 '향원정'을 감상한다.
T: 경북궁에 가 본 적 있나요? 그 내부에 있는 '향원정'이라는 건축물이예요. 다른 옛 건축물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S: 연못 가운데 작은 동산 위에 지어졌어요.
S: 이 층으로 되어 있고, 난간도 있어요.
S: 지붕이 육각형이고, 매일 생활하는 일반 집과는 형태가 달라요. 특별한 때나 경치를 즐기기에 지어진 것 같아요.
T: 이런 형식의 건축물을 정자라고 해요. 정자는 자연 경관을 감상하면서 한가로이 놀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주변 경관이 좋은 곳에 아담하게 지은 건축물을 말해요. 조선 후기 누각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소중한 건축이예요.
 ㉢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를 감상한다.
T: 현대 건축인데 형태가 매우 특이하네요. 이 건물을 보고 무엇이 연상되나요?
S: 투명한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 기둥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듯 보이는 모습에서 전통적인 정자의 느낌이 들어요.
S: 내부 사진을 보니 분명 전통 건축물을 본떠 만든 것 같아요.
T: 네, 잘 보았어요. 부산에 세워진 대형 건축물로, 우리

나라 전통 건축 양식을 잘 살려 만들었어요. 전통적인 건축의 특징이 잘 살려진 부분을 찾아볼까요?

S: 지붕은 골을 파서 기와 분위기를 냈어요.
T: 특히 지붕은 이 건물이 위치한 동백섬의 모습을 본떠 만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 썼는데, 여기에서도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S: 앞에 있는 정자와 잘 어울려요.
S: 내부 천장이 단청처럼 장식되어 있어요.

정리하기

1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전통이 계승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T: 이렇게 현대 건축물에도 전통적인 방식을 잘 살리거나 전통 양식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주변에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없을까요?
S: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요. 방패연과 전통 소반을 본뜬 거예요.
T: 지금까지 전통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변천 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았어요. 전통이란 결코 옛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앞으로도 계속 잘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하겠지요?
S: 네.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 할 것 같아요.
 ㉡ 감상한 작품과 시대를 정리한다.
 ㉢ 각 시대의 미술적 특징을 정리한다.

2 차시 학습 내용 안내하기

㉠ 서양 미술과 우리나라 미술을 비교해 보는 학습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수집을 과제로 제시한다.
 ㉡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빛살무늬 토기(흙/높이: 38.1cm/신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로, 기원전 약 4000년경부터 기원전 약 1000년경까지 한반도 전역에서 유행하였다. 아래 쪽이 좁고 위쪽으로 갈수록 넓고 긴 고깔처럼 생겼으며, 바깥 면에 빛살 같은 평행선이나 물결 모양을 이룬 점선 따위의 무늬를 넣었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대개 강가에 살았기 때문에 모래밭에 그릇을 세우기 위해 밑을 뾰족하게 만들었다. 음식의

신석기 시대

저장과 운반, 조리과 같이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토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액체를 저장하거나 불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식생활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즉 이전에는 날로 먹거나 구워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토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조리 방법도 개발되고 식량 자원도 보다 다양해지게 되었다.

토우장식 목 항아리(흙/높이: 34cm/삼국 시대-신라/국보 제195호)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목 긴 항아리(長頸壺)에 다양한 형상의 토우를 부착하여 최대의 장식 효과를 낸 신라의 가장 대표적인 토우장식 토기이다. 항아리의 목과 어깨 부분에는 개구리의 뒷다리를 물고 있는 뱀과 오리 모양 토우를 세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성기가 강조된 남자, 신라금(新羅琴)을 타고 있는 사람, 물고기, 새, 거북 등의 토우를 장식하였다. 이러한 장식 토우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조형물로서 신라인의 생활상뿐만 아니라 자연과 조화된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청자 칠보 투각 향로(청자/높이: 15.3cm/고려 시대)

고려 전기의 청자 향로로, 향이 피어올라 퍼지도록 뚫어서 장식한 구형(球形) 뚜껑 부분과 그 밑의 몸통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몸통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며, 윗부분은 둥근 화로 형태인데, 여러 겹의 국화잎으로 싸여 있고 커다란 국화잎이 이를 받치고 있다. 아랫부분은 향로 몸체를 받치고 있는 대좌로, 세 마리의 토끼가 등으로 떠받들고 있고 토끼의 두 눈은 검은 점을 찍어서 나타냈다. 대좌의 옆면에는 덩굴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유약은 회청색으로 은은한 광택이 난다.

이 작품은 칠보 투각 무늬가 교차되는 중심부에 백토상감(白土象嵌)으로 원점을 장식하였다는 점에서 상감 청자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고려청자에서는 드물게 다양한 기교를 부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예적인 섬세한 장식이 많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안정감 있는 뛰어난 청자 향로이다.

분청사기 모란무늬 편병(분청사기/높이: 21cm/조선 전기)

분청사기 편병은 앞뒤 양면을 두들겨서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편평한 양면에는 모란 넝쿨무늬가 음각 기법으로 새겨

져 있고 측면에는 상중하로 단을 나누어 모란 잎 무늬에서 변형된 무늬와 세로로 길게 줄무늬가 들어 있다. 굽과 몸통 하단을 제외한 전면에 백토를 칠했다. 유약은 미세한 가는 금이 있는 투명한 회청색이고, 입구와 어깨 부분에는 유약이 흘러 내려 얼룩이 생긴 곳도 있다.

원래 분청사기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도자 양식으로, 고려 말인 14세기 후반부터 조선 전기인 16세기 후반까지 200여 년간 성행하였다. 분청사기란 이름은 '분장 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준말이며, 고려 말 상감 청자의 품질이 점차 나빠지자 조선 시대에 이르러 그릇 표면에 백토를 듬뿍 발라 장식한 데서 유래하였다. 상감 청자의 기법과 형식을 계승하였지만, 분청사기에는 지역에 따라 그 특성이 뚜렷이 드러나며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분방한 맛이 담겨 있다.

달 항아리(백자/높이: 43.8cm/조선 중기)

달 항아리는 보통 높이가 40cm 이상 되는 대형으로, 둥글고 유백색(乳白色)의 형태가 둥근 달을 연상하게 한다 하여 일명 '달 항아리'라고 불린다.

조선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의 약 1세기 동안 조선 왕조 유일의 관요(官窯)였던 사옹원(司饔院)의 분원(分院) 백자 제작소에서 만들어졌으며, 달 항아리들은 당시 경기도 광주 지역에 퍼져 있던 340여 개소의 가마 가운데 금사리 가마에서 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크기가 대형인 탓에 한 번에 물레로 올리지 못하고 상하 부분을 따로 만든 후, 두 부분을 접합하여 완성한 것으로 성형이 매우 어렵다. 순백의 미와 균형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 백자의 독특하고 대표적인 형식이다.

이윤신(한국/1958~) 현대의 생활 도자기(도자기/Y사)

생활 자기를 제작하는 ㈜이윤신의 이도 사(社)의 대표인 도예가 이윤신의 작품이다.

생활 도자기 1세대 작가로 꼽히는 그녀는 '쓰임이 있는 그릇'을 고집하며 전통에 현대 디자인과 기능을 조화시켜 작업 세계를 펼치고 있다. 그녀는 그릇의 원래 기능에 불필요한 장식들은 최대한 견어내고 음식이 담김으로써 비로소 아름다움이 완성되는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생활 자기를 모아 왔다. "고려 시대 청자, 조선 시대 백자 등도 당대에는 일상 용기였습니다. 청자는 매병 형태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이 다술병이었죠.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 수만 달러에 거래되는 달 항아리도 당시에는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곡식 저장 용기였고요. 일상에서의 조형미가 백 년, 이백 년, 수백 년이 흘러 예술품이 된 거죠."(2013년 5월 인터뷰 중)

무용도(무용총 벽화/삼국 시대-고구려)

고구려 고분은 적석총(돌무지무덤)과 석실봉 토분(돌칸 흙 무덤)이 주를 이루는데, 고분의 위치와 규모, 벽화 내용으로 보아 당시 왕족이나 지배층의 무덤들로 추정되고 있다.

묘실 오른쪽 벽의 무용 그림으로 인해 '무용총'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무용과 음악이 있는 연회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주인을 표현한 인물의 기마도와 주방 등의 가옥 2동 외에 5명의 남녀 군무상, 9명의 합창 대상이 그려져 있어 당시 고구려인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게 한다.

화려한 점무늬 복장을 한 남녀 무용수가 긴 소매를 어깨 뒤로 늘어뜨리고 춤을 추고 있으며, 맨 앞 사람이 춤을 이끌고 나머지 무용수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 왼쪽에 있는 가옥에서는 여인들이 음식을 밖으로 나르고 있다.

고구려인들은 신분에 따라 입을 옷에 차이가 있었다. 저고리와 바지를 입는 것은 같은데 귀족은 바지의 통이 넓었다. 묘사에도 차이가 있어, 귀족은 윗부분이 네모난 모양인 반면, 시종드는 사람의 묘사는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고깔 모양이다.

서구방(고려/1323년경) 수월관음도(비단에 채색/165.5×101.5cm/1323년 작)

화염경의 내용 중 선재동자(善財童子)가 선지식을 두루 찾아보는 구법 여행 과정에서 우연히 관음보살을 만나 대자비의 설법을 듣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의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거대한 화면에 딱 차게 그린 1310년 작 수월관음도와는 달리, 여백이 있는 공간에 관음보살이 알맞게 그려져 있다.

바위 위에 반가좌한 측면관의 관음보살이 한쪽 무릎을 세운 채 꿇어앉은 선재동자를 바라보고 있다. 염주를 든 관음보살의 신체에는 금채를 하였으며, 배경으로는 바위와 대나무, 그리고 투명한 수반과 짙은 이르는 정병에는 버들가지가 꽃혀 있다. 관음보살과 선재동자 사이의 수면에는 산호와 연꽃이 흩어져 있는데, 관음보살의 왼발을 받치고 있는 작은 연화좌 옆으로 연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 무리가 화사하다. 버드나무 가지와 정병, 한 쌍의 청죽 등은 "청관음경"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버드나무는 예부터 온화함의 상징이자 봄의 신호로 여기는 한편, 악마를 물리치는 힘을 지닌다고 여겨져 왔다. 여기에서 '수월'은 물속에 비친 달, 세속의 헛된 꿈을 의미한다. 버들가지를 중시하여 발전한 것이 양류관음과 백의관음, 맑은 물을 중시하여 발전한 것이 수월관음이라는 설도 있다.

정선(조선/1676~1759) 계상정거도(종이에 먹/25.3×39.8cm/1746년 작)

겸재 정선이 퇴계 이황 선생 생존 시의 건물인 서당을 중

심으로 주변 산수를 묘사한 풍경화로써, '퇴우이선생진적첩(退尤二先生眞蹟帖)'에 실려 있다. '계상정거(溪上靜居)'란 '냇가에서 조용히 지낸다'는 뜻으로, 퇴계 이황 선생이 서당에서 한적하게 앉아 있는 풍경을 그린 것이라 추정되고 있다. 진경산수화는 고려와 조선 초·중기에 걸쳐 그려진 실경산수화의 전통을 토대로 발전한 것으로, 이전 시기의 경향에 비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며 성행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회화성과 함께 한국적인 특색을 뚜렷하게 발휘하며 전개되었다. 진경산수화는 조선 후기의 새로운 사회적 변동과 의식의 변모를 배경으로 유행했는데, 특히 종래의 사의적(寫意的) 형식화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주로 금강산과 관동지방, 서울 근교의 경관이 가장 많이 묘사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정선의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강희언의 '인왕산도', 김윤겸의 '영남명승첩', 김응환의 "금강산화첩", 김석신의 '도봉산도', 심사정의 '경구팔경도', 강세황의 "송도기행도첩" 등이 있다.

김기창(한국/1913~2001) 산사(비단에 수묵 채색/65×120cm/1976년 작)

7세 때 장티푸스로 언어 불능에 청각까지 잃었으나, 이당 김은호에게 그림을 배워 18세 때 조선 미술 전람회(약칭 선전)에 첫 입선했다. 해방 전에는 김은호의 영향으로 정확한 선묘와 설채(設彩)를 바탕으로 한 인물화와 자연 풍경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해방 이후에는 활발한 필법으로 화사한 꽃과 새 등을 소재로 전통을 재해석한다는 평을 받았다. 1950년대부터는 아내인 화가 박래현과 함께 실험적인 작품을 제작했으며, 주로 서민적인 내용을 주제로 직선과 면 분할, 담백한 색채를 통한 조형 의식을 보여 주었다. 이후 먹을 절제해 강인한 주제 의식을 뚜렷이 드러낸 '나비의 꿈', '태양을 먹은 새' 등을 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청록 산수(靑綠山水) 연작, 아내의 죽음 이후에는 바보 산수(山水) 연작, 민화풍의 화초 등을 제작했다.

부석사 무량수전(고려 시대/경상북도 영주시)

무량수전이란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전각'이라는 뜻으로, 이 건물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건물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이다. 건물 규모나 구조 방식, 완성도의 측면에서는 봉정사 극락전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고대 불전 형식과 구조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원융국사비문'에 의하면 고려 현종 7년(1016) 원융국사가 무량수전을 중창하였다고 한다. 1916년 해체 공사 때 발견된 자료에 의하면 공민왕 7년(1358) 왜구에 의하여 건물이 불타서 우왕 2년(1376)에 중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 양식이 고려 후기 건물과 많은 차이를 보이므로 원래 건물은 이보다 약 100년 정도 앞선 13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강석의 높은 기단 위에 남쪽을 향해 서 있는데 정면 중앙의 세 군데에 돌계단을 두었다. 앞면 5칸, 옆면 3칸으로 팔작지붕이며 배흘림기둥이 받치고 있다. 배흘림기둥이나 건물의 귀퉁이 기둥을 건물 가운데 기둥보다 조금 더 높게 처리한 귀퉁이기둥을 사용하는 등, 곡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였다. 내부에는 서쪽 끝에서 동쪽을 바라보도록 불단과 화려한 담집(집 모형을) 만들어 소조 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45호)을 모셨는데, 이는 아미타여래가 서방의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경복궁 정자 '향원정'(조선 시대/서울특별시 종로구)

경복궁 근정전 북쪽의 연못 안에 있는 누각으로, 1867년부터 1873년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향원지'안의 작은 동산 위에 있다. 이중 구조이며 정육각형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다.

처음 경복궁 건립 당시에는 빈터에 불과했으나, 세조 때(1456년) 작은 연못을 파고 '취로정'을 세웠고, 임진왜란 때 폐허가 되자 고종이 건청궁을 지을 때 다시 만들었다.

'향원정(香遠亭)'이라는 이름의 연원은 송나라 성리학자 주돈이의 '애련실'에 나오는데, '향원익청(香遠益淸, 향기는 멀수록 맑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 한다.

이울러 향원정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취향교(醉香橋)'라고 하는데 '향기에 취해서 다리를 건너다'라는 뜻이다.

정자는 정육각형으로, 장대석으로 된 낮은 기단 위에 육각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1·2층을 관통하는 육각기둥을 세웠다. 1층에는 평난간을, 2층에는 계자난간(난간을 닭의 발 모양으로 바깥쪽으로 구부정하게 하여 화초 무늬나 덩굴 무늬를 새겨 만든 난간)을 두른 뒷마루가 있다.

누리마루 APEC 하우스(부산광역시 해운대구/2005년)

건물 전체 조형은 우리나라 전통 건축인 '정자'를 현대적으로 표현하였고, 지붕의 형태는 동백섬의 능선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외부의 12개의 사선 기둥은 '다이내믹 부산'의 역동성을 표현하였고, 내부 장식은 한국의 창조적 전통문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세계적인 국제 회의장으로서 부산 해운대의 빼어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이름 붙여진 '누리마루 APEC 하우스'라는 이름은 세상, 세계를 의미하는 '누리'와 정상, 꼭대기를 의미하는 '마루'라는 순수 우리말을 합친 것으로,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APEC 회의를 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 스스로 평가하기

- 우리 지역에서 본 미술 작품은 어느 시대의 작품이며 어떤 특징이 있나요?
 - 우리 지역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은 주로 통일신라 시대 것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의 미술은 귀족적이고 세련된 미의식이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 불교 미술이나 사후 세계를 위한 고분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 통일신라 시대의 공예로는 '성덕 대왕 신종', '용 얼굴 무늬 기와', 건축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 석굴' 등이 있다.
-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시대 미술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세요.
 -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용맹함이 미술에 녹아들어 장엄하고 웅대한 미술이 발전했고, 훌륭한 고분 벽화가 많이 남아 있다.
 - 백제에서는 부드럽고 우아한 멋을 미술 작품에 표현했고,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신라에서는 호화로운 금속 공예와 다양한 토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불교 미술이 더욱 발전하여 훌륭한 건축물과 유물들이 경주를 중심으로 많이 남아 있다.
 - 고려 시대에는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칠기·금속 공예 등 섬세하고 정교한 귀족적인 미술 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또 부드럽고 화려하며 우아한 고려 불화는 세계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조선 시대는 겸손과 소박함을 중시하는 유교의 영향으로 실용적인 목공예나 백자를 중심으로 한 도자 공예가 발달했고 회화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 우리나라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도자 공예는 토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으로 변해왔어요. 현대에는 다양한 생활 도자기들이 있다.
 - 회화는 벽화에서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불화, 그리고 사실적인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 등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현대에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에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담은 작품들이 계승되고 있다.

참고 문헌

강민기 외 3명 공저, 클릭, 한국 미술사, 예경, 2011.
 김원용·안휘준 공저, 한국 미술의 역사, 시공아트, 2003.
 박우찬 저, 한국 미술사 속에는 한국 미술이 있다, 재원, 2000.
 오주석 저, 한국의 미 특강, 솔출판, 2003.
 윤희순 저, 조선 미술사 연구, 동문선, 1994.
 홍선표 외 4명 공저, 한국 미술사, 미진사, 2009.



우리나라 미술 탐험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심화



준비물

교사

우리나라의 시대별 미술 참고 작품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감상문



전통 미술의 과거와 현재

교과서 76~77쪽

우리나라 미술의 시대별 특징 알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우리나라 미술 중 도자 공예, 회화, 건축의 시대별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 도자기를 감상하고, 시대별 도자 공예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회화 작품을 감상하고, 시대별 회화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 건축물을 감상하고, 과거와 현대의 건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소단원의 개관

심화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단원은 과거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다양한 형식으로 확장된 현대 미술을 감상하며 미술이 시대와 지역의 생활 모습이나 사고를 반영하면서 변천해 왔음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 작품의 주제와 형식에서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찾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단원은 과거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을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관련지어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어서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하며 새롭게 도입되는 주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시대와 지역의 변화와 관련지어 파악하도록 구성하였다.

소단원의 목표

-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을 감상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감상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하기	78~79	182~1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을 시대별로 비교하고 특징 알아보기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 특징 비교하기 	4
	다양한 모습의 현대 미술 감상하기	80~81	188~1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현대 미술 작품 감상하기 • 현대 미술의 특징 이야기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이 지닌 특징 알아보기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술과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데 미흡하다.
●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시대와 지역에 따른 미술 작품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미술은 시대와 지역의 생활 모습이나 사고를 반영해 줍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미술, 과거와 현대 미술은 어떤 특징을 지니며, 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하기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을 감상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 무엇을 표현한 것이고, 왜 제작되었을까요?
- 작품의 시대적·지역적 배경을 조사해 보세요.

선사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 뼈이나 바위 위에 물고기나 동물의 사냥을 기원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미술의 시작이에요.



▲ **올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암각화/부분/300×1,000cm/신석기 말~청동기)



▲ **알타미라 벽화에 그려진 상처 입은 들소**(동굴 벽화/선사 시대/기원전 15000~10000년 경)



▶ **우리나라의 삼국 시대, 고려 시대와 서양의 중세 시대에는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예배하기 위한 건축, 조각, 회화가 발달하였어요.**



▶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피에타**(대리석/높이: 175cm/1497~1498년 작)



▶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동예 도금/높이: 93.5cm/삼국 시대-신라)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었나요?



조선 시대에는 회화가 활발하여 산수화, 인물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전문 화가뿐만 아니라 문인들도 그림을 그렸어요.



17~18세기에는 종교와 관련 없는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가 독립된 분야로 등장하고, 부유한 귀족들을 위한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 **심사정**(조선/1707~1769) **허경 산수**(종이에 수묵 담채/33.5×41.7cm/조선 시대)

▲ **호베마**(Hobbema, Meindert/네덜란드/1638~1709) **미달리크니스의 가로수 길**(캔버스에 유채/104×131cm/1689년 작)

더하기 활동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은 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발전했는지 조사해 보세요.

4-1. 재미있는 미술 여행

감상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비교하기

교과서 78~79쪽

수업 목표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을 감상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평가 기준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을 감상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감상문
준비물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 학생: 감상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미술은 인류의 발전,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다. 따라서 시대와 지역의 생활 모습이나 사고가 미술에 어떻게 반영되며 발전하였는지 상호 관계 속에 이해하게 한다.
- 교과서에 제시된 것 이외의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예시로 함께 제시하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인류 발전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작품의 비교 분석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

하되 학생이 스스로 그러한 특성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답변을 주의 깊게 듣고 구체적인 발문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분석이 끝난 이후에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소개하게 하여 학습한 내용을 학습자가 스스로 정리 및 적용해 보게 함으로써 학습 내용이 잘 전달되도록 한다.
- 감상 활동은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의 흥미와 고른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이나 '소수에 치중된 학습 활동'이 되기 쉽다. 모둠 활동이나 짝 활동, 질문 던지기 등의 수업 기술을 활용하여 학급 전체가 감상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T: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미술과 서양의 미술을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구별하는지 말

해 봅시다.

S: 우리나라 미술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해요.

S: 우리나라 미술은 먹으로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그래서 흑백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S: 주로 불교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T: 서양의 미술 작품은 어떨까요?

S: 일단 옷이나 음식을 먹는 풍경, 건물 등이 우리와 달라요.

S: 다양한 색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처럼 더 넓게 그린 그림들이 우리나라 작품보다 많아요.

S: 주로 교회와 관련된 작품이 많은 것 같아요.

T: 그렇군요. 우리나라 미술과 비슷한 부분은 없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 전개하기

1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을 시대별로 비교하며 특징 알아보기

T: 인류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단계의 발전을 거쳐 왔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인류는 각자 자신의 생활과 문화를 반영하는 무수한 미술 작품들을 생산해 왔고, 또 미술 역시 다양한 발전과 변화의 모습을 거쳐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은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참고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발견한 내용을 이야기해 봅시다.

S: 고대 미술에서는 공통적으로 동물을 그렸어요. 하지만 동물의 종류나 새겨진 곳은 차이가 있어요. 선사 시대 사람들이 사냥감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바위에 이들을 새긴 것은 공통적이에요.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T: 그래요.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동굴 벽이나 바위 위에 물고기나 동물 사냥을 기원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미술의 시작이에요.

S: 종교 미술은 공통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발달했기 때문에 불상이 많이 제작되었어요. 서양에서는 기독교 미술이 발달했어요.

T: 예, 종교가 발달하자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예배하기 위한 건축, 조각, 회화가 발달하였어요.

S: 그 후에는 종교 미술이 아닌 풍경화, 풍속화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용한 미술 재료나 표현

방법은 달라요.

T: 예, 모든 지역에서 점차로 종교와 관련 없는 풍속화, 정물화, 풍경화가 화가들에 의해 그려졌으며 부유한 귀족들을 위한 초상화가 많이 그려졌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발전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나 지위, 생각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서민들을 그리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T: 그리고 이 시기에는 눈으로 보는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나타내려고 했어요.

S: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자세한 그림을 그린 것은 공통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술은 수묵이나 수묵 담채로 많이 그렸고, 서양 미술은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그림의 여백을 두지 않았습디다.

2 암각화와 동굴 벽화 비교 감상하기

T: '올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알타미라 벽화에 그려진 상처 입은 들소'에서 암각화와 동굴 벽화는 무슨 뜻인가요?

S: 암각화는 바위에 새겨서 그린 그림이고, 동굴 벽화는 동굴의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T: 두 그림에서는 무엇을 표현하였으며, 왜 제작되었을까요?

S: 반구대 암각화에는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 도구와 사람, 사냥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동물을 잡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S: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는 들소가 그려져 있는데 기진 맥진한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고,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이들은 잡아야 할 동물을 벽화로 남겨 보관하면 그 동물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해요. 제작 의도에서는 암각화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T: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S: 선사 시대의 사람들은 산에서 열매를 채취하거나 낚시, 사냥을 해서 음식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많이 수확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기원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S: 그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지역에 따라 그 시기에 잡았던 동물들이 표현되는 점이 차이가 있어요. 올주에서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는 고래잡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T: 선사 시대 사람들의 표현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S: 암각화에서 동물들의 형태가 정확하게 표현되었어요.

S: 알타미라의 죽은 들소의 형태도 매우 세밀하게 잘 표현되었고, 색도 칠해져 있어요.

3 불교 미술과 기독교 미술 비교 감상하기

- T:**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과 '피에타'는 각각 무엇을 표현하였으며 왜 제작되었을까요?
- S:** 부처의 조각으로 불교에서 예배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 S:** 교회나 성당에서 예배하기 위해 제작되었어요.
- T:** 각각 불교 미술과 기독교 미술 작품이에요.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무릎에 얹고 생각에 잠겨있는 미륵보살을 뜻해요. 피에타는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어요.
- T:** 작품이 제작된 년도를 살펴볼까요? 작품의 시대적, 지역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 S:** 우리나라 삼국 시대부터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번성한 시기이므로 불교 미술이 발달하였어요. 부처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겼어요.
- S:** 중세 시대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번성하였으므로 예수의 모습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남겼어요.
- T:** 둘은 종교 미술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 시기의 미술은 종교와 관련되어 발달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 다른 종교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각각 불교 미술과 기독교 미술로 나타났어요.
- T:** 각 조각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 S:** 반가 사유상에서는 입가의 미소가 참 아름답고 신비로워요. 자비로운 미소 같아요. 얇은 치맛자락이 섬세하게 표현되었어요.
- S:**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얼굴과 죽어서 늘어진 예수의 시신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정말 비통해 보여요.

4 산수화와 풍경화 비교 감상하기

▶ 귀납적 사고법 적용

문제 인식

- 동기 유발하기
 - 우리나라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 사진 자료를 보며 자유롭게 느낌 말해 본다.
 - 느낌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는지 주요 요인을 찾아본다.

관계 탐색

- 다양한 자료에서 산수화와 풍경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탐색하기
 -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모둠별로 모은다.
 - 자료를 관찰하며 탐색한다.
 -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 기준에 대해 토의한다.
 - 자료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한다.

- 다른 학생들의 의견과 대비시켜 탐색한 내용을 정교화한다.

개념 발견

- 산수화와 풍경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상호 관계에서 공통점을 발견한다.
 - 예)** 산과 물 등의 풍경을 그린 그림 등
 - 탐색한 사실을 근거로 상호 관계에서 차이점을 발견한다.
 - 예)** 재료, 조형 요소의 차이, 시점, 공간 표현법, 낙관과 사인 등
 - 공통점과 차이점, 느낌의 차이를 언어로 설명해 본다.
 - 공통점과 차이점이 생긴 이유를 지역적 특성과 관련지어 본다.

개념 적용

- 심사정의 '하경 산수'와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 발견하기
 - 두 작품에 위에서 살펴본 사실을 적용하며 비교한다.
 - T:** 심사정의 '하경 산수'와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 두 작품을 비교 감상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 S:** 먼저 공통점은 자연 풍경을 그렸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풍경이 조금 달라요. 이것은 화가가 살았던 지역이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 S:** 종이에 수묵화의 재료를 사용한 것과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사용한 점이 서로 달라요.
 - S:** 우리나라의 그림에서는 다양한 선을 많이 사용하였고, 서양의 풍경화에서는 다양한 색으로 형태를 칠하여 표현하였어요.
 - S:** 서양의 풍경화는 한 시점에서 자연을 '사진처럼' 그리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선이 한곳으로 모아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에 비해 산수화는 멀리 있는 산을 위에 놓고 빈 여백으로 거리감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림 속에서 대상을 보는 시점이 달라져요.
 - S:** 우리나라 그림에는 글과 낙관이 있어요.
 - T:** 우리나라 산수화에서는 그림에 대한 시를 함께 적어 넣기도 했답니다.
 - T:** 사람이 아닌 자연을 주제로 하여 그린 그림을 우리나라 작품에서는 '산수화'라 하고 서양화에서는 '풍경화'라고 합니다. 왜 다르게 부를까요?
 - S:**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인 것 같아요.
 - T:**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풍경을 그렸지만, 우리나라

에서는 특별히 '산과 물, 자연의 어우러짐과 조화'를 표현하고자 했어요. 이러한 자연관과 철학적 사고가 반영된 그림이기 때문에 '산수화'라고 불렸어요.

- T:** 또 서양의 풍경화는 전문 화가가 그린 데 비해,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선비들도 여가나 인격 수양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문인 화가라고 불러요.
- S:** 서양의 작품이 색을 사용해 배경을 다 칠해서 꽉 채워진 느낌인 반면, 우리나라 작품은 배경을 칠하지 않아 더 여유로운 느낌이에요.
- T:** 비교 감상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학습한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다. 혹은 비교 감상문을 작성한다.

구분	심사정의 '하경 산수'	호베마의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
소재	우리의 지역적인 특색에 산(山)과 수(水)의 조화라는 자연관과 철학적 사고를 반영	네덜란드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전원 풍경을 묘사
재료	종이에 먹과 붓, 먹물의 농담과 옅은 채색으로 표현	캔버스에 유화 물감으로 채색
조형 요소	선이 중심, 옅은 채색	면과 다양한 색의 활용
시점	새가 공중에 떠서 지상을 비스듬히 내려다본 것처럼 표현하며 이동하는 시점에서 바라본 것을 그림	화면 중심의 하나의 소실점으로 시선이 모아지는 시점
그림을 그린 사람	문인 화가	전문 화가
공간 표현법	멀리 있는 것은 위에 표현, 여백으로 거리감을 나타냄. 산을 위에서 보는 방법, 아래에서 보는 방법, 그리고 밑에서 보는 방법으로 시각을 다르게 하여 원근감 표현	투시 원근법과 낮은 수평선으로 열린 공간의 느낌을 표현
글과 낙관, 사인	낙관이 있고 작품을 비평한 시가 있음	글과 낙관이 없음(서양에서는 대체로 사인을 함)

5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야기하기

(지도서 194쪽 '스스로 평가하기' 참조)

- T:**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문화적 전통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여 봅시다.
- S:** 미술 작품에서 주제의 변화는 시대별로 공통점을 보여요. 사냥감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물이나 물고기를 그리다가 종교 미술이 발전한 다음 풍경화, 인물화, 풍속화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으로 변천했어요.
- S:**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에서 재료나 표현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품을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그림인지, 아니면 서양의 그림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표의 내용 참조).
- T:** 예,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에서는 시대별로 공통된 변화를 보여 주는가 하면, 또한 많은 차이점을 가지면서 변천하여 지역별 문화적 전통을 형성하였어요.
- T:**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이 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며 발전했을까요?
- S:** 사람들의 사는 모습과 생각은 크게 보아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에서도 공통점이 있어요.
- S:**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한 재료가 달라 다른 재료를 사용하였고, 또 그림이나 표현 방식을 생각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며 발전했어요.

6 작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내가 좋아하는 작품 소개하기

- ① 감상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여 쓰도록 한다. 작품을 설명할 때에는 표현적 특성에 더불어 작품이 등장한 시대, 같은 시대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작품을 소개한 글을 전시하거나 서로 바꾸어 가며 읽고 작품 설명에 덧붙일 내용이 있다면 포스트잇에 적어 붙여 주도록 한다.

▶ 정리하기

- ① 감상 작품들의 시대와 특징을 정리한다.
- ②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다.
- ③ 작품을 감상한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한다.
- ④ 더 조사해 보고 싶은 작품과 내용을 이야기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암각화/부분/300×1,000cm /신석기 말~청동기)

높이 3m, 너비 10m의 'ㄱ'자 모양으로 깎인 절벽 암반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긴 바위 그림이다. 조각기로 쪼아 윤곽선을 만들거나 전체를 떼어 낸 기법, 쪼아 낸 윤곽선을 갈아 내는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신석기 말에서 청동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육지 동물과 바다 동물, 도구와 사람, 사냥하는 장면 등 총 75종 200여 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육지 동물은 호랑이, 멧돼지, 사슴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호랑이는 함정에 빠진 모습과 새끼를 뺨 모습, 사슴은 새끼를 거느리거나 뺨 모습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바다 동물은 고래가 작살에 맞은 모습,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냥하는 장면은 탈을 쓴 무당,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 배를 타고 고래를 잡는 어부 등의 모습을 묘사하였으며, 그물이나 배의 모습도 표현하였다.

이러한 바위그림은 선사 시대 사람들의 사냥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사냥감이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긴 것이다. 선과 점을 이용하여 동물과 사냥 장면을 생명력 있게 표현하고 사물의 특징을 실감 나게 묘사한 미술 작품으로, 선사 시대 사람의 생활과 풍습을 보여 주는 걸작으로 평가된다.

알타미라 벽화에 그려진 상처 입은 들소(동굴 벽화/선사 시대/기원전 15000~10000년 경)

에스파냐 북부 칸타브리아 지방에 있는 작은 산촌 마을의 석회암 동굴에 그려진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석기 시대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석기 시대 벽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수가 많고 완성도가 뛰어나며, 세련된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보존이 잘 되어 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동굴 벽과 천정에는 힘이 느껴지는 상처 입은 들소, 목적지를 향하여 이동하는 말, 어디론가 뛰어갈 것처럼 생기 넘치는 커다란 수사슴, 선과 윤곽만 남아 있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벽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림이 수십 점이나 된다. 또한 크기도 다양한데, 작은 그림은 50~60cm 정도이고, 커다란 그림은 길이가 2.2m에 폭이 2m나 되는 것도 있다. 많은 고고학자와 미술 평론가들은 완성도가 뛰어나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처 입은 들소

그림을 구석기 시대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한다. 상처 입은 들소는 약간 볼록한 바위 위에 선을 긋고, 그 위에 색을 칠한 그림으로 죽기 직전의 들소를 표현한 것이다. 들소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땅에 쓰러져 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형태로 묘사되어 있는데, 예리하게 관찰한 뒤에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두움과 밝음의 대비, 원근감, 미세한 털까지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고, 색이 있는 나무 열매와 갈색의 진흙, 티탄석과 같이 색을 갖고 있는 돌, 날카로운 나무와 뾰족한 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산에서 열매를 채취하거나 낚시, 사냥을 해서 음식을 구했다. 동굴 벽화에는 주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들은 잡아야 할 동물을 벽화로 남겨 보관하면 그 동물을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또한 동굴 벽화는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잡은 동물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곳에 보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알타미라 동굴 벽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동에 도금/높이: 93.5cm/삼국 시대-신라)

삼국 시대에 구리로 만들어 금을 입힌 대표적인 불상이다.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한쪽 다리를 무릎에 얹고 생각에 잠겨있는 미륵보살을 뜻한다. '미륵보살'은 미래의 세상에 부처로 태어나 모든 악을 없애고, 중생을 구원한다고 하는 미래의 부처이다.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얼굴이 동그스름하고 눈초리가 약간 올라갔으며, 입가에는 신비로운 미소를 띠고 있다. 또한 머리에는 세 개의 산 모양이 있는 관을 쓰고 있으며, 상체에는 옷을 걸치지 않았고, 목에 2줄의 목걸이가 있을 뿐 아무런 장식이 없다. 하반신은 아주 얇은 치맛자락으로 덮여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난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동에 도금/높이: 80cm/국보 78호)

단순하면서도 균형 잡힌 신체 표현과 자연스러우면서도 입체적으로 처리된 옷 주름, 분명하게 조각된 눈·코·입의 표현은 정교하게 다듬어진 조각품으로서의 완벽한 주도 기술을 보여 준다. 잔잔한 미소에서 느껴지는 반가 사유상의 자비로움은 우수한 종교 조각으로서의 송고미를 더해 준다. 일본 고류사에 있는 불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삼국의 불상과 매우 닮아 당시 한·일 간에 문화 교류가 활발했음을 말해 준다.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상 (적송/높이: 123.5cm)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피에타(대리석/높이: 175cm/1497~1498년 작)

서양 역사에서 중세(5~15세기)는 기독교가 승리를 거둔 시기로, 중세 미술은 교회의 교리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 기독교 미술로 발전하였다. 신학자들은 신자들이 물질의 아름다움을 통해 신성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결과로 아름다운 모자이크, 회화, 조각품이 만들어졌다. 예수의 탄생, 죽음, 승천과 같은 종교 내용이 회화와 조각의 주된 주제가 되었다. 그 후 르네상스 미술에 이르러 실제의 세계를 닮은 미술을 창조하려는 고대의 이상이 부활하게 되었다. 이 시대 미술은 해부학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혁신적인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고, 초상화, 풍경화, 신화 등의 다양한 주제 아래 발전을 이루었다. 종교 역시 미술에서 중요한 주제로 이어졌다. 이 조각상은 미켈란젤로가 29세에 조각한 것으로 프랑스인 추기경의 장례 미사 기념비로 제작되었지만, 18세기에 지금의 성 베드로 대성전 입구로 위치가 옮겨졌다. '피에타란 이탈리아어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으로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나 조각상을 말한다. 이 작품에서는 슬픔에 잠긴 마리아의 얼굴과 구겨진 옷자락, 죽어서 늘어진 예수의 시신이 하나의 대리석으로 조각되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신체를 표현하는 조각술과 구성에서 미켈란젤로의 거장다운 예술적 재능이 발휘된 작품이다. 피에타는 고전미를 강조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과 자연주의가 균형을 이룬, 예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미켈란젤로는 이외에도 오늘날 유명한 다비드상을 남겼다.



미켈란젤로(Michelangelo, Buonarroti/이탈리아/1475~1564) 다비드상(대리석/높이: 517cm/1501~1504년 작)

심사정(조선/1707~1769) 하경 산수(종이에 수묵 담채/33.5×41.7cm/조선 시대)

심사정은 정선과 더불어 18세기의 대표적인 문인 화가이다. 젊어서 정선에게서 그림을 배웠으나 당시 유행하기 시작한 남종(南宗) 산수화에 심취하여 스승인 정선의 진경산수화보다는 전통적 중국화제(畫題)의 문인화를 즐겨 그렸다. 화훼, 초충을 비롯하여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왕의 어진까지도 그린 대표적인 문인 화가이다.



심사정(조선/1707~1769) 강상이박도(비단에 수묵/153.2×61cm/1735년 작)

이 그림은 여름 장마철 산간의 비오는 경치를 묘사한 것이다. 화면의 중앙에 흐르는 시냇물 위에 돌다리 가 가로 놓여 있고, 오른쪽 근경에는 열은 먹색의 버들과 짙은 먹색의 나무가 서 있으며 그 뒤로 우장을 쓴 두 행인이 보인다. 돌다리 건너 왼쪽에는 가파른 벼랑이 있고, 물을 따라 길이 나 있으며, 중경 숲 속에 초가 몇 채의 지붕이 보인다. 그 뒤로 산등성이가 여름 안개 위로 펼쳐지며 멀리 담청색의 산이 보인다. 그 위 원편 공간에 '천고절작(千古絶作)'으로 끝나는 평시(評詩: 예술 작품을 비평한 시) 한 구절이 초서체로 써 있어 전체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이 그림과 함께 심사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고독하고 깊은 심경을 잘 표현한 '강상이박도'가 있다.

호베마(Hobbema, Meindert/네덜란드/1638~1709) 미델하르니스의 가로수 길(캔버스에 유채/104×131cm/1689년 작)

네덜란드 17세기 북유럽에서는 초상화, 풍경화, 풍속화, 정물화 등이 발전하였다. 북유럽의 부유한 상업 도시의 사람들은 가톨릭이 아닌 신교를 믿었으며, 화가들은 종교화가 아닌 이들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호베마는 평화로운 네덜란드 전원의 한적한 아름다움을 운치 있게 표현한 풍경 화가이다. 이 작품은 호베마의 대표작으로 네덜란드 남부 마스강 어귀의 작은 섬에 위치한 미델하르니스라는 풍경을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는 평평한 지평선과 수직으로 키 큰 가로수가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원근법에 의해 길 끝에서 지평선과 만나 이루어지는 소실점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한 건물 지붕의 붉은색과 나뭇잎의 회색빛 도는 초록색이 색채 대비를 이루며 서정적인 정취를 더한다. 풍경 하나하나에 엄격함과 세심함을 더한 네덜란드 풍경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다양한 모습의 현대 미술 감상하기

카드 168~172쪽 | 붙임 딱지 175쪽

★ 시대 또는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현대 미술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작품의 주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시대, 혹은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감상해 보세요.
- 그림 카드와 설명 카드를 사용하여 작품과 작품 설명을 연결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 가장 마음에 드는 미술 작품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림 카드 게임

- 1 모둠별로 3~4명을 구성하여 한 친구는 설명 카드를 제시하고, 다른 친구들은 설명에 맞는 그림 카드를 내는 게임을 합니다.
- 2 열 번의 게임을 하여 붙임 딱지(175쪽)를 가장 먼저 채운 친구가 이깁니다.

이름: _____

1	2	3	4	5
6	7	8	9	10



사진 기술이 발달하자 미술가들은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 드랭(Derain, André/프랑스/1880~1954) 콜리우르 항구에 있는 배 (캔버스에 유채/58×46cm/1905년 작)

▶ 뒤샹(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샘 (세라믹/63×48×36cm/1964년 작)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무제: 종이에 수채/49.6×64.8cm/1910년 작



▲ 달리(Dali,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기역의 지속(캔버스에 유채/24.1×33cm/1931년 작)

★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 현대 미술에 새롭게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 미술가들은 왜 새로운 재료나 표현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검은콩 (종이에 실크스크린/81.6×47.6cm/1968년 작)



▲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텔레비전 장면 (텔레비전 모니터, 식용/가연 성지/1974년 작)



▶ 달리는 울타리의 스케치

▲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불가리아→미국/1935~), 클로드(Jeanne-Claude/모로코→미국/1935~2009) 달리는 울타리(설치/39.4km/1972~1976년 작)



▶ 비스카이아(Basquiat, Jean Michel/미국/1960~1988) 잿더미(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스틱/82.9×121.9cm/1981년 작)



- ▶ **감상** • 미술이 시대나 지역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변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 현대 미술에 새롭게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스스로 평가하기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81

알아보며 감상하여 봅시다.

전개하기

1 시대 또는 지역의 모습과 관련지어 현대 미술 작품 감상하기

㉠ 드랭의 '콜리우르 항구에 있는 배'를 감상한다.

- T:** 무엇을 그렸고,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떤가요?
S: 바닷가 항구와 배가 그려져 있는데, 강렬한 느낌이 들어요.
T: 모래나 하늘은 무슨 색으로 표현되었나요?
S: 모래는 빨강, 하늘은 노랑과 초록으로 칠했어요.
T: 실제 장면을 찍은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러한 색이 나오는 실제 항구의 모습이 있을까요?
S: 없어요.
T: 작가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S: 작가는 장면을 사진처럼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강렬한 색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름 바닷가의 뜨거운 햇빛이 더 잘 연상되어요.
T: 미술가들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작 연도를 살펴보고 이 시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추측해 볼까요?
S: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가들은 외부 대상을 사진처럼 기록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이 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색이나 형태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중심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 칸딘스키의 추상 회화 '무제'를 감상한다.
T: 이 그림은 드랭의 '콜리우르 항구에 있는 배'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S: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T: 이 그림은 꽃, 나무, 사람, 풍경과 같은 외부 세계의 대상을 그리지 않았어요. 이 작품 속에서는 무엇을 찾을 수 있나요?
S: 선, 형, 다양한 색을 볼 수 있어요.
T: 이렇게 외부 세계의 대상을 표현하지 않고, 선, 형, 색의 기본 조형 요소로만 나타난 회화를 추상화라고 합니다. 선, 형, 색이 주는 느낌이나 재료, 제스처, 화면의 공간 등이 작품의 표현 요소이자 탐구 대상이 됩니다.
T: 이 작품은 최초의 추상 회화로 인정받고 있어요. 제작 연도를 확인해 볼까요?
S: 1910년 작품이에요.

- T:** 칸딘스키는 다음과 같은 일화로 추상 미술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해요(아래의 작품 설명에 있는 일화를 들려준다).
T: 이렇게 하여 추상 미술이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추상 미술이 많이 제작되었어요.
 ㉢ 뒤샹의 '샘'을 감상한다.
T: 이것은 어떤 작품이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S: 조각 작품 같아요.
T: 이것은 이 시대에 많이 제작되어 팔리던 남성용 소변기입니다. 작가는 이 물건을 사서 가명으로 사인을 하여 전시회에 출품을 하였어요. 작품의 제작 연도를 확인해 보고, 이 시기에 이 작품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S: 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T: 이 작품은 미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에는 전시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작품을 작가가 전시한다면 어떨까요?
S: 오늘날에는 미술로 생각하게 되었으므로 전시에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T: 그러면 그 시기의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미술 작품이라고 생각했을까요?
S: 미술가가 직접 만들었으며 아름다운 것을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T: 이렇게 미술에 대한 생각은 시대마다 달랐어요. 이 작품으로 인해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가져와 작가의 생각을 담아 설치하면 그것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건'이라는 프랑스어 '오브제', 혹은 영어의 '레디메이드'가 중요한 미술 용어가 되었지요.
 ㉣ 달리의 '기역의 지속'을 감상한다.
T: 이 작품은 어떤 장면을 그린 것일까요?
S: 항구와 절벽이 있는 풍경이 보이는데 녹아 흘러내리는 듯한 시계, 괴이한 동물 등이 있는 이상한 장면이에요.
T: 현실에서도 이런 장면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작가는 어떻게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냈을까요?
S: 현실의 장면이 아니에요. 아마도 현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한 것 같아요.
T: 이러한 그림은 현실의 장면이 아니라 꿈,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여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기묘함이나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지요. 작가는 어떻게 초현실의 세계를 표현할 생각을 하였을까요?
S: ...



감상 다양한 모습의 현대 미술 감상하기

교과서 80~81쪽

수업 목표	• 현대 미술에 새로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이해하며 감상한다.
평가 기준	• 현대 미술에 새롭게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상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감상문(비평문)
준비물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 학생: 감상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야수주의와 같은 미술 양식 중심의 감상보다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미술의 형식, 표현 방법 등을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연결하여 이해하며, 변화된 현대 미술의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 미술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모든 작품에서 시대적·지역적 혹은 사회적 특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시대

적·사회적 상황과 그에 따라 변한 미술가들의 사고를 추측해 보도록 단계적인 발문으로 학습을 유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1 현대 미술 관람 경험 이야기하기

- T:** 최근에 현대 미술 전시를 관람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전시에서는 어떤 종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나요? 또한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아닌 어떤 다른 장소에서 작품을 보았나요?
S: 물건을 가져다 쌓아 놓은 작품을 본 적이 있어요.
S: 마치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모니터를 통해 동영상을 관람하는 미술 작품도 있어요.
T: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였나요?
S: 이런 종류도 미술 작품인가 궁금했어요.
S: 그러한 작품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T: 현대 미술 작품의 시대적·지역적 배경과 관련하여 왜 그러한 작품이 등장하였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T: 이 시대에는 인간의 꿈, 무의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작가는 그 연구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무의식, 상상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미술가들은 이렇게 그 시대에 연구하는 학문에서 영향을 받기도 해요.

㉔ 앤디 워홀의 '검은콩'을 감상한다.

T: 이것은 무엇인가요?

S: '검은콩'이라고 쓰인 것으로 보아 '검은콩'을 그린 것 같습니다.

T: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던 수프 캔을 실크 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제작하였어요. 그런데 이 작품은 상품 광고일까요? 미술 작품일까요?

S: 미술 작품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있으니 미술 작품이겠지요.

T: 이 작품이 미술 작품이면 이 상품의 광고 사진과 무엇이 다를까요?

S: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T: 이 작가는 코카콜라 병의 이미지나 배우 사진을 실크 스크린으로 대량 생산하여 팔았다고 해요. 왜 작가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상품 이미지로 미술 작품을 제작했을까요?

S: ...

T: 작가는 소비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며 미술이 항상 고급스러운 것만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해요. 이러한 미술을 '팝 아트'라고 해요. 결과적으로 대중 예술과 고급 예술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㉕ 백남준의 '텔레비전 정원'을 감상한다.

T: 재료 등을 보며 사진 속 작품을 설명해 볼까요?

S: 텔레비전 수상기와 여러 식물들을 설치하여 만든 텔레비전 정원이네요. 텔레비전에서는 작가가 제작하고 녹화한 비디오 이미지가 보여요.

T: 이러한 미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S: 사용한 재료로 보면 이 작품은 미디어 아트예요.

T: 비디오, 컴퓨터 등의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자 미디어 아트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설치 미술로, 비디오 설치 작품이에요. 설치 미술은 어떤 종류의 미술인가요?

S: 이미 만들어진 물건(오브제, 레디메이드)이나 제작한 물건을 주어진 공간에 설치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미술의 종류예요.

T: 이 작품을 만든 백남준은 비디오 캠코더가 판매되기

시작할 무렵 바로 구매하여 작품을 만들어 비디오 아트를 창시하였어요.

㉔ 크리스토 부부의 '달리는 울타리'를 감상한다.

T: 이것은 어떤 작품일까요?

S: ...

T: 이 작품은 미국에서 언덕과 계곡, 들판을 거쳐 마침내 바닷가에 이르는 높이 5.5m, 총길이 39.4km의 인공 울타리를 설치한 것으로 마치 중국의 만리장성 과도 흡사한 물결을 이룬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2주 동안 설치되었다가 철거되었다고 해요. 이 작품은 다른 작품과 어떻게 다른가요?

S: 넓은 땅 위에 설치된 점이 특색 있어요.

S: 설치되었다가 사라진다는 점이 독특해요.

T: 전통적인 재료와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지에서 작품을 하는 미술을 '대지 미술'이라고 해요. 대지 미술은 설치 미술의 형식을 띠게 되지요.

㉕ 바스키아의 '젯더미'를 감상한다.

T: 이 작품은 무엇을 그렸고, 무엇이 생각나나요?

S: 사람, 글자 등이 등장하고, 거리의 낙서나 만화가 생각나요.

T: 거리의 낙서도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S: 작가의 생각이 표현된 것이니까 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T: 이러한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S: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T: 이런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과는 다른 느낌을 주지요. 오늘날 회화는 낙서나 만화 같은 그림을 포함하는 것처럼 작가의 개성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어요. 그래서 다양한 작품에서 서로 다른 느낌을 받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요.

2 카드놀이를 하며 작품과 작품 설명을 연결하기(부록 활동)

㉑ 모둠별로 3~4명을 구성하여 한 친구는 설명 카드를 제시하고, 다른 모둠원들은 설명에 맞는 그림 카드를 내미는 게임을 한다.(부록 169~172쪽)

㉒ 맞추는 친구에게 '양이 붙임 딱지'를 주고 열 번의 게임에서 붙임 딱지를 먼저 채운 친구가 이긴다.(부록 175쪽)

3 마음에 드는 미술 작품 이야기하기

T: 감상한 다양한 작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여 작품의 특성과 왜 마음에 드는지 이유를 말해 봅시다.

S: 저는 바스키아의 작품이 마음에 들어요. 낙서와 같은 그림을 그린 작가의 생각이 독특하고, 그림이 재미있기 때문이에요.

S: 저는 크리스토의 '달리는 울타리' 작품이 좋아요. 미술 작품을 캔버스가 아닌 실제 대지 위에 한 생각이 독창적이기 때문이에요.

S: 뒤샹의 '샘'이 인상적이에요. 미술가에게 그리고 만드는 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에요.

4 현대 미술에 새롭게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 알아보기

T: 과거의 미술에 비해 달라진 현대 미술의 특징을 말해 봅시다.

S: 추상 미술이 등장했어요.

S: 오브제를 가져오는 설치 미술이 나타났어요.

S: 대중적인 이미지를 가져온 작품도 있어요.

S: 과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비디오, 컴퓨터로 하는 작품도 나타났어요.

S: 직접 땅 위에 작품을 하는 대지 미술도 있어요.

S: 낙서나 만화와 같은 회화도 있어요.

T: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감상한 작품 외에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요?

S: 작가가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행위 예술도 있어요. 신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신체 예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하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과정 예술로 불리기도 해요.

S: 시장에서 미술가와 시장 사람들이 같이 작업하는 공공 미술도 있어요.

T: 이처럼 현대 미술에서는 다양한 표현 형식이 있어 작가는 자신의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가장 적합한 형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5 새롭게 배운 미술 용어 설명해 보기

T: 새롭게 배운 미술 용어를 찾아 설명해 봅시다.

S: 추상 미술은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의 구체적인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색, 선, 형 등의 추상적 형식을 띤 미술이에요.

S: 오브제는 미술 작품을 하기 위해 선택한 물건을 말해요.

S: 팝 아트는 소비 문명과 대중문화가 발달하면서 고급 예술로서의 미술에 반대하며 대중적인 이미지로 제작하는 미술의 종류예요.

S: 오브제가 미술에 도입되면서 직접 사물을 가져와 주어진 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을 설치 미술이라고 해요.

S: 대지 미술은 캔버스가 아닌 땅, 즉 대지에 직접 작업하는 미술 종류를 말해요.

6 새로운 미술 형식의 창조에 대해 토론하기

T: 왜 현대 미술가들은 새로운 재료와 표현 방법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형식을 창조하는 것일까요?

S: 새로운 기술, 물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S: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화하므로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S: 새로운 주제를 표현하고 싶은데, 기존의 미술 재료나 표현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S: 미술은 일정한 규범을 따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술가들은 새로운 표현 방법을 계속하여 탐구해요.

T: 그래요. 그러한 많은 요인으로 현대 미술은 계속해서 다양한 표현 형식을 확장시켜 왔어요. 미술은 일정한 규범을 따라 반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제나 표현 방법에 창의적인 사고를 보여 주는 작품들이 미술사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정리하기

- ㉑ 카드놀이 한 것을 정리한다.
- ㉒ '현대 미술의 특징'을 정리하여 이야기해 본다.
- ㉓ '스스로 평가하기'로 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드랭(Derain, André/프랑스/1880~1954) 콜리우르 항구에 있는 배(캔버스에 유채/38×46cm/1905년 작)

미술에서 색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 요소로서, 사용한 색상과 색칠 방식에 따라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을 다르게 만든다. 과거 회화에서는 물체의 고유색을 사용한 데 비해, 이 작품에서는 작가의 감성, 감정에 따라 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마티스, 드랭, 블라맹크와 같은 야수주의 화가들과 키르히너, 놀데 등의 독일 표현주의 작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색이 비록 대상이나 자연 현상을 묘사하는 데 쓰였을 지라도 대상과는 무관하게 보는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하고 주관적인 색채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들은 더 나아가 형태를 변형, 왜곡하여 표현하거나 화면을 평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사진이 널리 퍼지면서 사진이 할 수 없는 회화만의 독자적인 세계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드랭(Derain, André/프랑스/1880~1954) 차링 크로스 다리(캔버스에 유채/80×100cm/1906년 작)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무제(종이에 수채/49.6×64.8cm/1910년 작)

“어느 날 해질 무렵, 밖에서 일을 마친 후 그림을 곱씹히 생각 하면서 화실로 돌아왔지요. 화실에 들어선 나는, 내부를 비추는 광선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이 신비로운 그림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형과 색뿐이었고,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순간 나는 이것이 얼마 전에 그렸던 그림이 옆으로 잘못 놓인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이러한 감동을 살려 보려고 무척이나 노력 하였으나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렸던 그림을 어저처럼 눈혀도 보았으나 언제나 그려진 대상만 보일 뿐, 어제의 색과 형으로 된 아름다운 광채는 다시 보이지 않았지요. 비로소 나는 그림 속의 대상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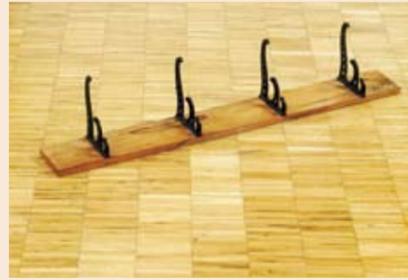
위는 칸딘스키가 추상 미술의 가능성을 처음 발견한 순간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추상 미술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묘사하는 미술, 물체의 모양을 재현하는 미술에서 벗어나 색, 선, 형 등의 추상적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미술을 총칭하는 것으로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의 하나이다.

추상 표현에 이르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그 하나는 자연의 형태를 점점 단순화하여 추상에 도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 속의 어떠한 대상과도 연관되지 않고 선, 형, 색의 조형 요소로만 직접적인 추상 작품을 하는 경우이다. 추상 미술의 감상은 일차적으로 형식이 주는 감흥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지만 작가가 작품을 하게 된 발상 및 의도를 알고 감상하는 것도 필요하다.

뒤샹(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샘(세라믹/63×48×36cm/1964년 작)

마르셀 뒤샹은 1917년 산업 생산품인 남성용 소변기를 구입하여 전시장에 전시하였다. 작가가 작품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제품을 구입하여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가명으로 사인을 하여 전시한 것뿐이었다. 작가는 이 오브제 혹은 기성품(ready-made)이 갖는 외형의 미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선택 또는 사고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던 것이었다.

이 작품은 당시에는 전시가 거부되었으나, 그 후 기존의 재료나 형식에 얽매임 없이 오브제를 미술에 도입하는 설치 미술과 사고가 미술 작품이 되는 개념 미술의 시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미술’은 ‘조형 예술’ 또는 ‘시각 예술’이라는 용어로 전환되게 되었다. 오브제(objet)란 오브젝트(object)의 불어 발음으로 물건을 뜻하는 말이며, 뒤샹 이후 중요한 미술 용어가 되었다.



뒤샹(Duchamp, Marcel/프랑스→미국/1887~1968) 발골에 치이는 장애편(옷걸이/1917년 작)

달리(Dali,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기억의 지속(캔버스에 유채/24.1×33cm/1931년 작)

흘러내린 시계, 괴이한 형체 등의 이미지로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장면이다. 달리는 초현실적인 상상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초현실주의 미술가들은 정신분석학 연구, 즉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세계, 꿈의 분석, 자유 연상법 등의 연구 내용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하여 초현실주의는 이성과 의식의 통제와 지배를 거부하고 비합리적인 것, 무의식, 잠재의식의 표현을 탐구하였다. 또한 논리적이면서 실재하는 현실을 본능적이고 잠재적인 꿈의 경험과 융합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하며, 현실 세계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달리(Dali, Salvador/에스파냐→미국/1904~1989) 만종(매넬에 유채/16×21.7cm/1932년경)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검은콩(종이에 실크 스크린/81.6×47.6cm/1968년 작)

전통적으로 미술 작품은 미술관에 기품 있게 전시되며, 상류 계층만이 향유하고 소장하는 고급 예술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1950년대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는 대량 생산과 소비가 절정에 달하고 매스 미디어와 광고 등 대중문화적인 시각 이미지가 넘쳐나게 되면서, 팝 아트는 이들을 ‘자연’이자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미술의 영역 속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Pop은 Popular(대중적인)의 약자로 클래식, 예술 음악이 아닌 1950년대 이후 젊은 세대가 즐겨 찾던 통속적인 성격을

띠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팝 뮤직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워홀은 메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 대중 스타의 이미지나 코카콜라 광고와 같은 대중적 이미지를 실크 스크린으로 캔버스에 확대 전사하여 대량 생산하거나, 이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상업 인쇄물을 연상시키는 방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워홀(Warhol, Andy/미국/1928~1987) 메릴린 먼로(실크 스크린/각 92×92cm/1967년 작)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텔레비전 정원(텔레비전 모니터, 식물/가변 설치/1974년 작)

미술은 새로운 매체와 기술의 진보를 수용하며 변화해 왔다. 20세기 중반부터 전자 매체의 소통 방식을 조형 예술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미디어 아트라 부른다. 비디오 아트, 컴퓨터 아트가 대표적이다.

비디오는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도 녹화된 것을 즉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의 카메라와 모니터로 여러 이미지를 같은 시간에 녹화·재생시키며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매혹된 예술가들은 비디오를 사용하여 다중 감각적인 작품을 보여 준다. 비디오는 이미지 창조 외에도 개념 미술, 행위 예술의 장면을 녹화하거나, 환경과 설치 작업에 결합되고 또한 컴퓨터와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 탐구된다.

시대와 문명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 백남준은 “콜라주 기법이 유희를 대신해서 나왔듯이 앞으로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텔레비전 문화의 대중성을 최대한 이용하여 비디오 아트의 탐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백남준은 녹화 수단으로서의 비디오뿐만 아니라 설치 미술로서도 비디오를 이용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물건(오브제, 레디메이드)이나 제작한 물건을 설치하여,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미술 형식이다.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서울 랩소디(모니터, 혼합 재료/벽면 설치/2002년 작)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불가리아→미국/1935~), 클로드(Jeanne-Claude/모로코→미국/1935~2009) 달리는 울타리(설치/39.4km/1972~1976년 작)

설치 미술 형식이 등장하면서, 점차로 미술 작품은 미술관이나 갤러리 안에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캔버스가 아닌 거대한 들판이나 산, 해변도 작가의 캔버스가 될 수 있다는 사고로 기존의 전시 공간에 전시할 수 없는 종류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이러한 예술 형식을 환경 미술이라 하는데, 이는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매체들을 탐색하고 예술과 삶, 예술과 관객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 보고자 한다.

환경 미술 중 대지를 활용하는 미술을 대지 미술이라 하는데, 크리스토와 클로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해안가, 파리의 풍네프 다리, 독일 의회 건물을 포장하거나 계곡에 커튼을 설치하는 일련의 대지 미술 작품을 제작한다. 만들고 설치하는 데 수백억 원을 쏟아 붓고 수백 명의 일꾼을 동원하는데, 그렇게 만든 작품은 2주 후 철거된다.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불가리아→미국/1935~), 클로드(Jeanne-Claude/모로코→미국/1935~2009) 둘러싸인 섬들(폴리프로필렌 섬유/전체 길이 11.2km/1983년 작)



크리스토(Christo, Javacheff/불가리아→미국/1935~), 클로드(Jeanne-Claude/모로코→미국/1935~2009) 우산들(노란 우산 1,760개/각 높이: 6m, 직경: 8.66m, 가변 설치/1991년 작)

바스키아(Basquiat, Jean Michel/미국/1960~1988) 잿더미(캔버스에 아크릴, 오일 스틱/82.9×121.9cm/1981년 작)

설치, 행위, 테크놀로지 아트 등 다양한 미술 형식의 탐구로 구상 회화는 한동안 그려지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다가 1960~70년대 중반 경부터 회화가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특히 구상 회화로써의 복귀 현상이 일어났다. 구상 회화로써의 복귀로 종교, 신화, 역사 등의 회화의 전통적인 주제가 부활하기도 하나, 사실적인 재현 회화와는 달리 은유적인 메시지들로 채워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생애나 그가 속한 사회, 문화나 역사적 배경 등에 근거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의 바스키아는 뉴욕 변화가의 지하철 벽면에 고적이던

낙서, 구호의 이미지를 나열하는 식의 작품을 제작하며, 거리의 낙서(graffiti)를 미술의 영역에 끌어들이었다. 그는 흑인 영웅, 해부학, 자전적 이야기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바스키아(Basquiat, Jean Michel/미국/1960~1988)
토착적인(캔버스에 아크릴, 유성 크레용,
종이 콜라주/223.5×195.6cm/1984년 작)

★ 스스로 평가하기

- 미술이 시대나 지역의 모습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동굴 벽이나 바위 위에 물고기나 동물 사냥을 기원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이 미술의 시작이다.
 - 종교가 발달하자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예배를 하기 위한 건축, 조각, 회화가 발달하였다.
 - 백남준의 '텔레비전 정원'은 대중 매체가 널리 퍼지던 시기의 시대적 배경을 잘 드러내고 있다. 백남준은 비디오 캠퍼더가 판매되기 시작하자 바로 구매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새로 개발된 첨단 기술로 미술 작품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 워홀의 '검은콩'은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수프 강통 그림을 광고 형식으로 제작한 것으로, 대량 생산과 소비 문명이 절정에 달했던 미국의 시대적·지역적 배경에서 등장했다.
- 우리나라와 서양 미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 시대별로 미술 작품이 그린 주제의 변화는 공통점을 보인다. 사냥감이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물이나 물고기를 그렸고, 종교 미술이 발전하다가 풍경, 인물, 풍속화 등 다양한 주제의 그림으로 변한다. 서민들의 생활 모습도 그림에 그려졌다.
 - 우리나라와 서양의 미술 작품의 재료나 표현 방법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그림은 종이에 먹과 붓, 먹물의 농담과 열은 채색으로 표현하지만 서양의 그림은 캔버스에 유화 물감을 이용해 그린 것이 많다.
 -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미술 작품은 선을 중심으로 열은

채색을 이용했지만, 서양의 그림에서는 면과 색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미술 작품은 배경을 칠하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 두어 여유로운 느낌이 들지만, 서양의 미술 작품은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지 않고 남겨 둔 부분이 없이 모두 채워 넣는다.
- 서양의 미술 작품은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사진처럼 그린 것이 많은데,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미술 작품은 새가 공중에 떠서 지상을 비스듬히 바라본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있고,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것처럼 표현한 것도 있다.
- 서양의 미술 작품은 투시 원근법을 이용해 가까이 있는 것은 크고 선명하게, 멀리 있는 것은 작고 흐릿하게 그려서 공간감을 표현했지만,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그림은 멀리 있는 것은 위에 표현하고 여백을 이용해 거리감을 표현했다. 산을 위에서 보는 방법, 아래에서 보는 방법, 밑에서 보는 방법으로 시각을 다르게 해서 원근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 우리나라(혹은 동양)의 그림에는 그린 사람과 소장한 사람, 비평한 사람을 알 수 있는 낙관이 찍혀 있고, 미술 작품을 비평한 시가 쓰여 있지만, 서양의 작품에는 글과 낙관이 없다.
- 그림을 그린 사람에도 차이가 있다. 서양은 그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은 전문 화가들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혹은 동양)는 전문 화가뿐 아니라 시, 서, 화를 중시하는 전통으로 문인들이 자기 수양을 위해 그린 그림도 많다.
- 현대 미술에 새롭게 도입된 재료와 표현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 뚜렷한 형태 없이 조형 요소로만 그리는 추상 미술이 있다.
 - 오브제를 전시하는 설치 미술이 있다.
 - 대중적인 이미지를 이용하는 작품도 있다.
 - 과학 기술을 이용해 비디오나 컴퓨터로 하는 작품도 있다.
 - 직접 땅 위에 작품을 하는 대지 미술도 있다.
 - 낙서나 만화와 같은 회화도 있다.

참고 문헌

박용숙 저, 한국 미술사 이야기, 예경, 1999.
캐롤 스트릭랜드 저, 김호경 역, 클릭, 서양 미술사, 예경, 2000.
노버트 린튼 저, 윤난지 역, 20세기의 미술, 예경, 2003.



다양한 시대와 지역의 미술 탐험



준비물

교사
과거 미술과
현대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난 참고 작품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감상문



다양한 모습의 현대 미술 감상하기

교과서 80~81쪽

과거 미술과 현대 미술 비교하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다음은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와 현대 작가인 보테로의 '모나리자'입니다. 두 작품을 감상한 뒤, 과거 미술과 현대 미술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 두 작품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 과거의 미술에 비하여 달라진 현대 미술의 특징을 말해 보세요.
-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과거 미술가들과 현대 미술가들의 표현 방식은 왜 다를까요?

4-2 미술 감상과 비평

중단원의 개관

감상 영역의 중영역 '미술 감상과 비평'은 미술 작품을 분석·해석하며 가치를 판단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3, 4학년의 '미술 작품에 흥미와 관심 갖기'에 이어서, 5, 6학년에서는 '미술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 익히기'의 내용으로 심화된다.

미술 감상이 미술 작품을 자기 스스로 느끼고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라면, 미술 비평은 언어를 통해 미술 작품을 분석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가치를 판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는 것이다. 좀 더 지적이며 체계적인 비평 활동을 위해서는 감상의 다양한 관점과 방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과 미적 판단 능력, 나아가 비판적 사고력을 형성할 수 있다.

기초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에서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감상문을 써 본다.

심화 '보는 미술, 읽는 미술'에서는 다양한 감상 관점과 감상 방법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본다.

중단원의 목표

- ★ 전시 관람을 준비하고, 전시회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 ★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한다.
-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관해 토론한다.

중단원의 구성

■ 체험 ▲ 표현 ● 감상

수준	소단원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소단원의 제재명
기초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82~85	198~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 작품의 특징 찾기 ● 작품 감상문 쓰기
심화	보는 미술, 읽는 미술	86~89	205~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 알아보기 ● 미술 작품 비평하기



4-2. 미술 감상과 비평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기초

소단원의 개관

기초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은 미술관에서 원작이 주는 감흥을 느끼며 감상해 보는 기회를 갖는 데 목적이 있다. 가능한 책이나 사이버 공간을 통한 간접적인 작품 감상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관람하는 활동을 통해 미술을 생활화하여 미술 문화를 애호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전시 관람을 계획하고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본다. 이를 적용하여 전시 관람을 하며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거나 감상문을 작성해 본다. 이때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고 적용하며 좀 더 풍부하게 말로 설명해 보거나 글로 써 보도록 한다.

소단원의 목표

- 전시 관람을 준비하고, 전시회에서 작품을 관람하는 다양한 방법을 안다.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특징을 이야기해 본다.
-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체험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82	1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관람 준비하기 •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아보기 	4
감상	작품의 특징 찾기	83	199~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 감상하기 • 작품의 특징 이야기하기 	
	작품 감상문 쓰기	84~85	201~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 해석하기 • 다양한 형식의 감상문 쓰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전시회를 관람하고 감상문 작성하기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데 미흡하다.
● 전시회를 관람하고 감상문 작성하기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다.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석하며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다.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다.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하는 데 미흡하다.

4-2 미술 감상과 비평

즐거며 배우는 미술관

전시회를 관람하며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고,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책이나 사이버 공간이 아닌 전시장을 찾아 작품을 직접 감상한다면 느낌이 어떨까요? 전시회를 관람하며 원작이 주는 감흥을 느껴 볼까요?

생각 정리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 전시 관람을 준비하고,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봅시다.

미술관, 갤러리, 야외 조각 공원, 공공 미술, 사이버 미술관 등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전시 관람 준비하기

수용적 감상 비판적 감상 비교 감상

도슨트의 작품 설명을 들으며 감상할 수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비판적 감상도 있어요.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하여 감상해요.

체험 활동 작가와 인터뷰 감상 학습지

전시장과 관련된 체험 활동을 하며 작품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아요. 작가가 인터뷰하거나, 작가가 직접 쓴 작품 설명을 읽어요. 감상 학습지를 활용해서 종합 감상을 하기도 해요.

미술 용어 찾기 도슨트(작품 해설사), 수용적 감상, 비판적 감상 5월이 열기 92쪽

체험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교과서 82쪽

수업 목표	• 전시회 관람을 준비하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한다.
평가 기준	•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준비물	• 교사: 다양한 미술관 소개 자료 • 학생: 주변 전시관의 전시 일정과 교육 활동 조사 자료

- #### 지도상의 유의점
- 관람하기 전 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 소개, 관람 안내, 체험 학습 프로그램 등이 있는지 미리 조사한다.
 - 작품을 감상하며 보고, 느끼고, 이해한 내용을 그리거나 적을 수 있는 메모지와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기초 내용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전시회 관람 계획 세우기

- T: 미술관이나 화랑에서 전시회를 관람한 적이 있나요?
S: 시립 미술관에서 하는 상설 전시를 본 적 있어요.
T: 전시회에서 감상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 이번 시간에는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 전개하기

1 전시 관람 준비하기

- ㉠ 방문할 전시회의 종류를 살펴본다.

전시 공간에 따라	실내	미술관, 갤러리(화랑)
	실외	야외 조각 공원, 공공 미술(벽화나 상징물) 공간
전시 기간에 따라	상설 전시, 임시 전시	
표현 수단에 따라	실물 전시, 영상 전시, 실연 전시, 동력 전시, 음향 전시, 체험 전시	

- ㉡ 미술관 안내 책자, 팸플릿, 인터넷, 전화 등을 활용하여 전시 일정과 전시 내용, 교육 활동을 조사하여 방문 계획을 세운다.

2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 알기

- ㉢ 도슨트의 작품 설명을 듣는 수용적 감상을 한다.
㉣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비판적 감상을 한다.
㉤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 감상을 한다.
㉥ 전시회와 관련한 체험 활동을 하며 작가 작품의 표현 방법을 안다.
㉦ 작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 작가와 인터뷰하거나, 작가가 직접 쓴 작품 설명을 읽는다.
㉧ 감상 학습지를 활용한 종합 감상을 한다.

▶ 정리하기

- ㉠ 전시 관람을 위한 사전 활동에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한다.
㉡ 관람 예절과 태도를 확인한다.
- 관람 예절과 태도를 알아본다.
 - 전시의 종류에 따라 체험, 또는 눈으로 감상한다는 것을 숙지한다.
 -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거나 그리면서 관람할 수 있게 필기도구를 준비한다.

작품의 특징 찾기

★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고, 작품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감상 관점	
형식	• 작품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 어떤 방법으로 표현했나요? • 특징적인 조형 요소와 원리는 무엇인가요?
내용	• 작가는 작품을 통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나요? • 작품에 담긴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재래시각이 아닌 비록시각에 작가가 작업에 쓰이는 재료를 보세요. 색구려 플라스틱 소쿠리, 그 하얗은 것도 소리칠 수 있다는 것,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고 싶었어요.

우려 느끼고 재밌는 작품이냐. 바구니를 만들어 매달아 놓은 것도 미술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작품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 회정화(한국/1961-) 카탈리(플라스틱 소쿠리, 강철/높이 18m/2019년 작)

감상 작품의 특징 찾기

교과서 83쪽

수업 목표	•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미술 작품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준비물	• 교사: 감상 자료 • 학생: 필기도구, 메모지

지도상의 유의점

- 전시 관람 중에 지켜야 할 예절과 태도를 숙지한 후 관람하도록 한다.
- 감상 활동을 진행할 때 도슨트나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전체적으로 감상하는 방법, 감상 활동지를 활용하여 개별 또는 소그룹으로 감상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작품과 개별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한두 작품을 집중 감상, 비교 감상하거나 전체적인 작품을

개괄적으로 감상할 수도 있다.

- 관람 후 학습은 되도록 빠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생각과 느낌을 잘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다.

교수·학습 과정

▶ 들어가기

1 전시 관람을 위한 사전 학습 확인하기

- T: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S: 미술 작품을 관찰(보고)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T: 작품 감상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S: 작품 감상에 알맞은 관점과 방법으로 감상해요.
S: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상해요.
S: 자신의 계획에 따라 감상합니다.
T: 전시 작품 관람 태도와 예절을 이야기해 볼까요?
S: 조용하게, 질서를 지켜 다른 관람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요.
S: 촬영 금지 구역에서 사진을 찍거나 작품을 훼손하지 않아요.

▶ 전개하기

1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으로 작품 감상하기

- ㉠ 교과서 83쪽의 작품을 보며 형식과 내용에 따른 감상 관점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발문한다.
- T: 작품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가?
S: 현실에서 만나는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형상을 표현했어요.
T: 사용한 재료는 무엇인가요?
S: 플라스틱 소쿠리요.
T: 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S: 초록색과 빨간색의 소쿠리가 번갈아 연결된 모습에서 색의 보색 대비를 느낄 수 있어요.
S: 점자로 커졌다가 작아지는 소쿠리의 모습에서 리듬감을 느낄 수 있어요.
S: 똑같은 소쿠리의 형이 반복되고 있어요.
T: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S: 하찮은 물건도 미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요.
T: 작가의 작품 제작 의도를 알아보을까요?
S: 작가가 현대에 살아 있으므로 현대를 배경으로 했을 것 같아요.

S: 소쿠리는 과거에도 써 왔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것 같아요.

T: 그렇군요, 여러분의 의견은 다양하네요.

T: 작품에 담긴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S: '카발라'는 현대 사회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재료로 전시 장소에 따라 변형되어 전시되는 작품으로 현대의 시간적·공간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T: 최정화 작가는 작품을 전시하는 장소를 중시한다고 해요. 그는 작품을 전시하기 전에 전시할 장소를 미리 답사하는데, '카발라'를 전시하기 전에도 대구 미술관을 미리 답사하여 어떤 작품을 전시하면 좋을지 확인했다고 해요. 이처럼 '카발라'는 현대에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사용하였고, 현대를 시대적·사회적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④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한다.

- 도슨트의 설명을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수용적 또는 비판적으로 감상한다.
- 단독 또는 비교 감상을 한다.
- 작가 인터뷰 또는 워크 시트를 활용하여 감상한다.

2 작품의 특징 이야기하기

① 작품을 감상하고 보고, 알고, 느끼고,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이야기한다.

- 작품을 본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한다.
 - 작품의 제목, 작가, 제작 연도, 제작 장소, 재료 등 작품 주변에서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 작품 안에 존재하는 시각적 요소와 조형 요소들의 상호 작용인 조형 원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 작품이 의미하는 것이나 작품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감상자의 느낌이나 감각을 이야기한다.
 - 작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한다.
- ② 작품의 특징을 알고 작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해 본다.
- 모듈을 구성하거나 2인 1조가 되어서 작품을 평가하고 종합해서 토론한다.
 - 서로 다른 평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도록 진행한다.
 -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정리하기

① 작품의 감상 관점을 생각하며 작품의 특성에 대해 정리한다.

• 작품을 선정하여 보고, 알고, 느끼고, 판단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품의 특징을 기록하여 정리한다.

② 전시회 방문을 통한 작품 감상의 좋은 점을 이야기한다.

- 작품의 규모와 표현 방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작품의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최정화(한국/1961~) 카발라(플라스틱 소쿠리, 강철/높이: 18m/2013년 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미술 작품을 만들었다. 18m에 육박하는 거대한 소쿠리 기둥은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다.

플라스틱 소쿠리는 하찮은 물건으로, 촌스럽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져 왔다. 작가는 이 소쿠리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 18m 길이로 늘어뜨렸다. 관객은 늘어진 소쿠리 다발 아래를 걸어 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이 작품은 대구 미술관에서 있었던 '연금술전'에 전시된 것으로, 하찮은 일상 소품을 미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자신의 작업을 연금술에 비유한 작업이다. 그는 플라스틱 소쿠리를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으로 만들면서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였다.

이 작품의 제목인 카발라(Kabbalah)는 히브리어로 '전통'이란 뜻이며, 유대교 신비주의의 용어로 전래된 '지혜와 믿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면에서 연금술이라는 용어와도 맞닿아 있다. 보는 사람에게 위압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대한 작품이 사실은 플라스틱 소쿠리로 만들어졌다는 위화감과 일상 속 사물에 붙은 종교적 메시지는 극단에 있는 것들끼리 충돌하며 빛어내는 감동을 관객에게 전해 준다.

가장 재미있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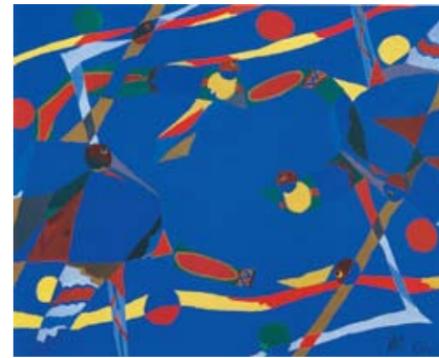


작품 감상문 쓰기

★ 다음의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작품 비평의 단계

- 1 전체적인 느낌을 살펴보고 제목을 확인하여 비교해 봅니다. 작품에 어떤 표현 특징이 드러나 있는지 찾아봅니다.
- 2 작품 형식에서 얻은 실마리를 연결하여 작품의 내용을 추측해 봅니다.
- 3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해 봅니다.
- 4 자신의 생각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해 봅니다.



▲ 섹션(학생 작품) 최정화(한국/1961~2010) 호수(II)(캔버스에 유채/277×182cm/1999년 작)



생각해 보는 것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말하곤 해. 그것은 내가 고백할까 같은 생각을 주로 쓰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개리의 건달미를 내 그림에 되살려 내려고 노력한다. 나는 서민들의 애환을 그려낸 민화에서 화면의 구성법, 색채 사용 등을 배웠다.

더하기 활동 전혁림 미술관 누리집 <http://www.jeonhyuckim.org>에서 다른 작품들을 더 살펴보세요.

★ 다양한 형식의 감상문을 작성하고, 읽어 봅시다.

- 감상문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미술 용어를 밑줄 표시해.
- 감상문에서 작품의 특징을 잘 설명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 나의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 섹션(학생 작품) 최정화(한국/1961~2010) 호수(II)(캔버스에 유채, 색연필/297×277cm) ▲ 섹션(학생 작품) 최정화(한국/1961~2010) 호수(II)(캔버스에 유채, 색연필/297×277cm)



▲ 섹션(학생 작품) 최정화(한국/1961~2010) 호수(II)(캔버스에 유채, 색연필/297×277cm) ▲ 섹션(학생 작품) 최정화(한국/1961~2010) 호수(II)(캔버스에 유채, 색연필/297×277cm)

- 체험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감상 전시 관람에서 감명 깊었던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 내가 쓴 감상문에서 잘못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감상 작품 감상문 쓰기

교과서 84~85쪽

수업 목표	•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평가 기준	• 비평 단계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문을 작성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감상문
준비물	• 교사: 필기도구, 작품 관련 자료 • 학생: 필기도구, 종이, 작가 관련 자료, 수채 용구, 사인펜 등



지도상의 유의점

- 전혁림 작가의 미술관 누리집을 방문하여 작가에 대해 미리 조사해 오도록 한다.
- 작품 비평의 단계를 숙지하고,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발문한다.
- 감상문을 쓰는 다양한 형식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1 전시 학습 상기하기

- T:** 지난 시간 미술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감상하였나요?
- S:** 내용과 형식에 대한 다양한 감상 관점을 중심으로 감상하였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감상하기도 하고 도슨트 활용이나 워크 시트, 작가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을 하기도 했어요.
- T:** 이번 시간은 전시회에서 감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술 비평문을 써 보도록 하겠어요.

전개하기

1 작품의 비평 단계로 작품 의미 해석하기

- T:** 작품의 전체 느낌은 어떠한가요?
- S:** 파란색 작품을 보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 T:** 작품 제목은 무엇인가요?
- S:** '호수(II)'라고 해요.
- T:** 작품에 어떤 표현 특징이 드러나 있나요?
- S:** 작품이 온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바다 같기도 하고,

물속 같기도 해요.

S: 오방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S: 파란색 호수와 그곳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들을 통해 행복한 자연을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T: 작가의 생각과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감상해 볼까요?

S: 작가는 통영이라는 바닷가에 살았고, 통영의 풍경과 느낌을 많은 작품에 담았다고 해요.

S: 오방색 등 색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T: 종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해 볼까요?

S: 예쁜 파란색을 사용하여 호수, 혹은 바다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 물빛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전해 주어요.

S: 파란색 호수에 오방색의 새들이 단순하게 표현되어 실제 풍경의 모습보다 그 느낌을 더 상상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같아요.

2 다양한 방법으로 감상문 쓰기

㉠ 잡지 형식으로 감상문을 작성한다.

㉡ 만화 형식으로 작품의 특징을 쓴다.

㉢ 인터넷 게시판의 댓글 형식으로 감상문을 쓴다.



잡지 형식



만화 형식



인터넷 댓글 형식

3 다양한 감상문 읽고 토론하기

T: 감상문에서 작품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 미술 용어를 말해 보세요.

S: '호수(II)'의 감상문에서는 형과 색, 오방색과 같은 다양한 색 이름에 관한 용어가 많습니다.

T: 감상문에서 작품의 특징을 잘 설명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S: 우리나라 전통의 색인 오방색을 사용하여 전통미를 느낄 수 있다는 부분과 형태를 단순화하여 리듬을 살려 화면을 구성하였다는 부분이 작품의 특징을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T: 나의 감상문에 어떤 내용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S: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주제와 작품의 형식,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작품을 해석해서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기

㉠ 미술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자신의 생각을 관련지어 감상문을 작성한다.

㉡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을 익혀 감상문을 작성한다.

㉢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전혁림(한국/1916~2010)

1916년 1월 21일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난 전혁림은 독특한 색감으로 한국 추상화를 개척한 원로 서양화가이다.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쌓아 나가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로 불린다.



작가 소개

전혁림 작가는 1970년대까지는 다소 무겁고 암울한 분위기의 풍경화를 많이 그렸다. 화면이 명량하고 경쾌하게 된 것은 8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러면서 그의 화면은 점차적으로 형상이 제거되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2차색, 혹은 보색의 활용에 의한 화면 구성을 보여 주었다. 형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곡선에 의한 화면 분할과 유채색의 적절한 구사는 화면을 끌어 들이는 흡입력이 있다. 그의 또 다른 예술 세계의 특징 중에 색채 의식을 들 수 있다. 1989년 중앙일보사 주최의 <전혁림 근작전>에서 '칠순의 젊음, 다도해의 물빛 화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이후로 그는 색채 화가로 명명되었다. 그는 고향 다도해의 푸른색을 기초로 하여 오방색은 물론 갖가지 원색으로 색채 구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작가는 고구려의 정신과 특히 그 고분 벽화의 세계에서 창작의 원천을 삼아 전통의 계승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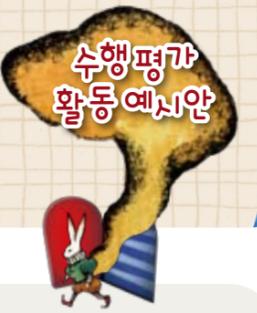
- 전혁림 회고전, 동아일보사, 1994년 참고

H* 스스로 평가하기

- 전시회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 도슨트의 작품 설명을 듣는 수용적 감상을 한다.
 - ➔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비판적 감상을 한다.
 - ➔ 다른 작가의 작품과 비교 감상한다.
- 전시 관람에서 감명 깊었던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보세요.
 - ➔ 최정화의 전시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쿠리를 이용하여 거대한 '카발라'라는 작품과 '코스모스'라는 작품을 만든 것을 보고 역시 미적 안목을 가진 창의적인 작가라고 생각했다.
- 내가 쓴 감상문에서 잘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 ➔ 비평 활동의 과정과 단계가 드러나게 잘 작성하였다.
 - ➔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되어 있고 나의 생각과 느낌이 잘 연결되지 못한 것 같다.



즐기며 배우는 미술관



작품 감상문 쓰기

교과서 84쪽

비평 단계로 작품 의미 해석하기

_____ 학년 _____ 반 이름 _____

● 교과서 84쪽의 '호수(II)' 작품을 감상하며 다음의 표에 따라 작품의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

• 작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한가요?
• 어떤 형식적 특징을 보이나요?
• 제목과 작품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 같나요?
•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간단히 써 보세요.
• 나의 생각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어 보세요.



보는 미술, 읽는 미술

심화

소단원의 개관

심화 '보는 미술, 읽는 미술' 단원은 미술 비평 활동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미술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형식에 담아 작품을 제작한다. 우리는 그러한 작품의 형식적인 요소를 눈으로 보면서 감흥을 느끼고, 더불어 형식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나 의미까지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미술 작품은 '보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읽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관점과 방법, 그리고 비평하는 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총체적인 비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올바른 비평 능력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주제, 표현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다양한 감상 관점과, 단독 또는 비교 감상, 직관적 또는 분석적 감상, 수용적 또는 비판적 감상 등의 감상 방법을 알아본다. 그리고 이를 적용하며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또한 다양한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대하여 토론해 본다.

소단원의 목표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을 감상한다.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특징을 설명한다.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관해 토론한다.

수업의 구성

구분	제재명	교과서 쪽수	지도서 쪽수	주요 학습 활동	차시
감상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 알아보기	86~87	205~2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 감상에 활용된 감상 관점을 알아보고 감상하기 ● 작품 감상에 활용된 감상 방법을 알아보고 감상하기 	4
	미술 작품 비평하기	88~90	209~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특징 설명하기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관하여 토론하기 ● 감상문 작성하기 	

※ 수업의 구성은 학교 상황이나 여건, 학생들의 수준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바랍니다.

학습 평가

■ 체험 ▲ 표현 ● 감상

교육 과정 내용	성취 기준	성취 수준		
		상	중	하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 이해하기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서툴다.
● 미술 작품의 특징을 찾아 설명하기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다양한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4-2 미술 감상과 비평

보는 미술, 읽는 미술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고 작품을 비평해 봅시다.

생각하기

미술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한 형식에 담아 작품을 제작한다. 우리는 작품의 형식을 눈으로 보고, 내용을 읽어 감흥을 느끼고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익혀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해 볼까요?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 알아보기

★ 감상 관점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90분 | 93쪽

▲ 피카소(Picasso, Pablo) 에스파냐/1881~1973) **게르니카**(렌버스에 유제/349×777cm/1937년 작)

▲ 이일동(한국/1945~) **제주생명의봄**(장지에 혼합 재료/91×117cm/2011년 작)

형식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 요소와 원리 선, 형, 색 등의 조형 요소의 사용에서 특징은 무엇인가요? 어떤 조형 원리와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무엇을 그렸나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 재료와 방법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하였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의 의도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요? 작가는 형태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사회적 배경 작품에 담긴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더하기 활동 피카소와 이일동 작가에 대하여 조사해 보세요.

86 4-2. 미술 감상과 비평

보는 미술, 읽는 미술 87

감상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 알아보기

교과서 86~87쪽

수업 목표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평가 기준	● 미술 작품의 감상 관점과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감상문
준비물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 학생: 감상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작품의 형식과 내용 감상은 형식을 통해 내용을 유추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작품의 형식에서 내용을 알아내기 어려운 작품도 있다. 그렇지만 가능한 작품의 시각적인 표현에서 내용을 찾고 유추하도록 하며, 교사는 이 실마리를 통해 알아낸 내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해 주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알아보고 적용해 보는 것은

★ 다양한 감상 방법으로 작품을 감상해 봅시다.

- 단독 감상** 작품을 단독으로 볼 때 형식과 내용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비교 감상** '게르니카'와 비교하여 주제에 따른 색의 표현은 어떤가요?
- 직관적 감상** 작품을 보고 처음 든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 분석적 감상** 색, 혹은 주제 등 작품을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분석해 보면, 어떤 특징을 찾을 수 있나요?
- 수용적 감상** 이 작품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평가 받고 있나요? 조사해 보세요.
- 비판적 감상** 나는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 하나요?

작품을 다양한 시각으로 풍부하게 보기 위한 것이다. 기계적인 감상보다는 작품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감상 관점과 방법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 시각 예술에서도 문학 작품처럼 소재와 주제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시각 예술에서 주제는 작가가 보고 재현해 놓은 사물인 경우가 많아 소재와 주제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가령, 자연이나 역사적인 소재는 그 장면이 작품의 주제로 바로 연결된다. 사실적인 표현일 경우 내용의 파악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정신적이고 이념적인 표현일 경우 그 내용은 깊은 해석이 요구된다.

교수·학습 과정

- ▶ **들어가기**
- ▶ **작품을 감상할 때의 관점과 방법에 대한 경험 이야기하기**
 - ① 작품을 감상할 때 먼저 파악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 ②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작품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 ▶ **전개하기**

보는 미술, 읽는 미술 205

1 감상 관점 알아보고, 작품 감상하기

①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한다.

▶ 반응 중심 학습법 적용

반응 형성

- 학습 문제 확인: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적용하여 '게르니카'를 감상한다.
- 작품에 대한 자신의 반응 형성하기
- 작품 '게르니카'에 대한 자신의 처음 느낌과 생각을 말해 본다.
 - 작품을 보면서 어떠한 장면 혹은 경험이 생각났나요?
 -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이 작품의 특징은?
 -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 친구와 나의 해석이 같은가요?

반응 명료화

-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작품 감상 방법 알아보기

S: 저는 저의 경험과 관련해 작품을 감상해요.

T: 미술 작품에서 형식과 내용을 구분한다면 형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S: 작품의 형식은 시각적 표현으로 그려진 대상의 조형 요소와 원리, 그리고 표현 방법을 말해요.

T: 작품에서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S: 작품의 주제, 작가의 표현 의도, 시대 사회적 배경을 말해요.

T: 작품의 내용은 작품의 형식을 보고 유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형식만 보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아야 해요.

- 작품의 형식을 분석하며 반응 명료화하기

- 작품 형식의 어떤 면이 자신에게 느낌과 생각을 가지게 하였는지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며 분석해 본다.
 - 그림 속에서는 어떤 대상이 등장하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나요?
 - 선, 형, 색 등의 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나요?
- 작품을 본 후, 자신의 처음 생각과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말해 본다.
- 작품에서 더 알고 싶은 것 생각해 본다.
 - 작품 속의 장소는 어디이며, 무엇을 하는 장면일까요?

반응 심화

-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연결해 반응 심화하기
- 작품에서 느낀 인상이나 나의 해석을 작가가 작품에 담은 주제와 작가의 의도, 시대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본다.
 - 이 작품을 그린 작가와 제작 연도는?
 - 작품 제목인 '게르니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작품에 대해 알아보을까요?
-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관련하여 감상 작품을 해석한다.
 - 작가가 그림에 담은 사건은?
 - 작가는 전쟁의 비참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표현하였나요?
 - '게르니카'를 위한 습작으로 시작한 '우는 여인'을 비교하여 감상해 볼까요?
 - 작가는 이 작품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정리 및 발전

- 나의 해석을 정리하며 작품의 의미 판단하기

- 작품에 대한 내 생각과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이야기한다.
- 이 작품으로 볼 때 미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한다.
- 이전의 나의 생각과도 비교하여 이야기한다.
- 작가 이야기가 작품 감상에 미친 영향 이야기한다.
- 감상 관점에 대해 정리한다.

감상 관점에 따른 '게르니카' 감상 내용 예시

미술 작품 감상 관점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무채색만을 사용해 수목화 느낌이 나기도 해요.

전등, 소, 사람이 마치 서로 싸우듯 그려져 있어요. 1937년 에스파냐 게르니카 마을에서 독일 나치의 공습을 받아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장면을 그렸어요.

뒤틀리고 조각난 듯한 형태와 무채색의 표현은 전쟁의 비참함을 더욱 실감 나게 해요.

화가는 전쟁의 비참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표현 재료와 방법

조형 요소와 원리

주제

작가의 의도

시대 사회적 배경

㉠ 감상 관점을 생각하며 '제주 생활의 중도' 를 감상한다.

T: 작품 '게르니카'의 감상 내용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감상 관점에 따라 '게르니카'를 감상해 보세요.

T: 작가의 생각과 그려진 배경을 설명해 주겠어요. 작가는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담은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를 그리고 있어요. 작품 주제인 중도(中道)는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의 세계를 말해요. 즉, 인간의 쾌락과 고통, 화합, 우리 삶을 이루는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평등하게 표현하였어요. 자연의 풍광과 일상의 희로애락이 어우러진 그의 작품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상향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따스하고 정겹게 느껴져요.

감상 관점에 따른 '제주 생활의 중도' 감상 내용 예시

- 표현 방법: 여러 가지 혼합 재료를 사용해 표현하였고 형태가 단순하게 표현되었어요.
- 조형 요소와 원리: 큰 나무가 화면 가득히 좌우 균형 있게 있으며 가지 사이에 동물,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파랑, 빨강, 하양이 주요색이며 노란색과도 어우러져 경쾌하고 장식적인 느낌을 주어요.
- 주제: 자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평화로운 장면을 그렸어요. 제목이 '제주 생활의 중도'인 것을 보니 작가가 제주에서 행복했던 생활을 그린 작품 같아요.
- 작가의 의도: 작가는 인간과 동물,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하자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한 것 같아요. 좀 더 분명하게 작가가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 시대적·사회적 배경: 이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은 자동차가 그려져 있으므로 오랜 옛날은 아니에요. 또한 도시가 아닌 자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활이에요.

2 감상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 감상하기

①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기서 생각해!

여러 가지 감상 방법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

단독 감상은 한 개의 작품 또는 같은 요소와 특징을 가진 작품만을 제시하여 작품의 가치 평가를 위해 적용하는 감상 방법이다. 비교 감상은 작품의 주제, 그리고 재료와 용구의 사용, 작품의 양식, 제작 연대 등을 비교 관점으로 설정하여 두 대상에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상호 비교하는 감상 방법이다.

수용적 감상과 비판적 감상

수용적 감상은 처음부터 '좋은 작품', 혹은 '훌륭한 작가의 작품'과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런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의한 감상이다. 작품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비판 없이 수용하는 방식이나 유명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비판적 감상은 반대의 자세로 작품의 좋고 나쁨을 적극적인 자세로 판단하려는 비판적·탐구적 태도에 의한 감상이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내가 보기에 이 부분은 묘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작품에 접근한다.

직관적 감상과 분석적 감상

우리가 어떤 미적 대상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은 관련 요소들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심적 반응 때문만은 아니다. 직관적 감상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작용 없이 대상과 감성적으로 접하면서 직감적으로 감동을 받는 감상 방법이다.

분석적 감상은 작품의 주제, 조형 요소와 원리의 처리 방법, 표현 재료와 기술 등의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감상하는 방법이다. 분석적인 감상을 취하더라도 부분과 전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감상해야 한다. 직관적 감상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분석적 감상을 하는 것이 좋다.

① 다양한 감상 방법으로 이왕중의 '제주 생활의 중도'를 감상한다.

- 감상 방법에 따른 '제주 생활의 중도' 감상 내용의 예시를 보며 감상 방법에 따른 감상 내용을 익혀 본다 (교과서 '확인, 쪽쪽' 93쪽).

감상 관점에 따른 '제주 생활의 중도' 감상 내용 예시

감상 방법

작품이 전체적으로 밝고 행복한 느낌을 주고, 할머니 댁에서 동물들과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니 미소를 짓게 돼요.

'게르니카'는 무채색을 사용하여 전쟁의 우울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제주 생활의 중도'는 화려하고 밝은색을 사용하여 행복한 느낌을 주어요.

색의 사용을 분석해 보면 파랑, 빨강, 하양이 주요색이며 노랑, 초록과도 어우러져 밝고 장식적인 느낌을 주어요.

이 작품은 작가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평화롭게 그린 '제주 생활의 중도'를 그린 작품 중 하나라고 해요.

제주 생활의 모습을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사고를 더해 그렸다고 생각해요.

- ㉔ 다양한 감상 방법으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감상한다.
- '제주 생활의 중도'의 감상 내용 예시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감상 관점에 따라 '게르니카'를 감상하여 본다.

여러 가지 감상 방법에 따른 '게르니카' 감상의 예시

- 단독 감상: 이 작품은 캔버스에 유화로 그린 작품이에요. 무채색만을 사용해 수목화 느낌이 나기도 해요.
- 비교 감상: '제주 생활의 중도'가 여러 가지 화려한 색을 사용하였고 형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반면 '게르니카'는 무채색만을 사용하였고, 형태도 일그러져 있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 직관적 감상: 쫓고 쫓기는 듯한 긴박한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무질서해 보이기도 해요.
- 분석적 감상: 등장인물을 살펴보니 아기를 안고 우는 어머니, 놀란 말들 등이 있으며 이 형태들이 기묘하게 조각조각 분해된 듯한 형태로 표현되었어요. 밝고 어두움으로 그 표현이 더욱 두드러져요.
- 수용적 감상: 1937년 에스파냐 게르니카 마을에서 독일 나치의 공습을 받아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장면을 그렸어요. 피카소의 걸작으로 알려져 있어요.
- 비판적 감상: 처참한 광경이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조각조각 분할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어 그 고통스러운 장면이 더욱 강조되어 표현된다고 생각해요.

3 작품 감상의 관점과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기

- T: 작품 감상에서 다양한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S: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어요.
- S: 내가 늘 보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 S: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작가의 의도나 시대 사회적 배경과도 연결하여 작품 감상을 할 수 있어요.
- T: 작품에서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무엇인가요?
- S: 주제가 잘 드러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 S: 주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 형태가 변형되어 무엇인지 잘 알아볼 수 없어요.
- T: 작품 감상에서 작품의 형식과 내용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 S: 형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술 작품은 시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 S: 그림에서 내용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을 알아야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완전한

감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T: 둘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어떤 작품은 형식이 주는 감흥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한 작품이 있는가 하면 내용까지 읽어야 작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작품도 있어요.

정리하기

- ㉑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을 정리하고 함께 이야기한다.
- ㉒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정리해 본다.
- ㉓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다.
- ㉔ 작가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하여 조사해 보고 싶은 것을 메모하였다가 집에서 검색해 본다.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게르니카 (캔버스에 유채/349×777cm/1937년 작)

'게르니카'에서는 나치 폭격의 구체적인 참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사실적이지 않은 인물과 대상의 표현이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작품을 이루는 각 요소들의 조형적 특성에서 기인하여 그림의 전반을 지배하는 흑백의 무채색 색상에서 더욱 극대화되었다. 캔버스 왼쪽부터 보면 불이 난 집, 죽은 아이의 시체를 안고 절규하는 여인, 멍한 황소의 머리, 부러진 칼을 쥐고 쓰러진 병사, 광기에 울부짖는 말, 상처 입은 말, 램프를 들고 쳐다보는 여인, 여자들의 절규, 분해된 시신 등등 전경터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뒤엉켜 있다.

이월중(한국/1945~) 제주 생활의 중도(장지에 혼합 재료/91×117cm/2011년 작)

이월중은 초기에 전통적인 한국화의 재료인 한지 위에 먹이나 채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다. 그러나 아크릴을 사용하거나 부조 기법 등을 이용하여 회화를 하는 것처럼 동서양의 재료에 관계없이 재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한국화의 전통성을 극복하였다.

그의 작품은 인간사의 모습을 따뜻하게 시각화하며, 자유로운 상상력과 화면 구성, 풍부한 색채감, 그로 인해 연출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월중은 1990년대 초부터 제주 서귀포에 머물며 제주의 자연과 생활 모습을 담은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를 그리고 있다. 작품 주제인 중도(中道)는 그 나름의 생활 철학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어느 한곳으로 치우치지 않은 평등의 세계이다. 즉 인간의 쾌락과 고통, 사랑과 증오, 탐욕과 이기주의 등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을 융합하여 화합으로 이끄는 마음의 상태이다.

오름, 고, 대, 구, 구

미술 작품 비평하기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작품을 만나요

-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 작품을 보고 받은 첫 느낌과 생각은 어떤가요?

작품을 보고 말해요

- 사용한 재료와 도구,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요?
- 작품의 형식이 주는 특징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 작품의 형식에서 어떤 시대와 사회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작가의 의도를 알아요

- 작품이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 이러한 표현 방법을 선택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작품의 내용에서 어떤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나요?

작품을 평가해요

- 감상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품 1

이 작품은 정보 사회를 상징하는 전자 이미지로 만들어진 로봇이에요. 로봇은 산업 사회의 속도를 상징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작가는 현대 사회의 미디어 문화가 우리의 생활과 예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요. 그는 소형 비디오 캠코더가 생산되자, 그것을 구입하여 비디오 아트를 창시했어요.

작품 2

이 작품은 작가가 39년간 입었던 코북, 군복, 정장 등의 유니폼들을 마네킹에 입혀서 설치했어요. 이 유니폼들은 작가 자신이 지나는 시간과 우리들의 자화상을 보여 주고 있어요.

★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관하여 토론해 봅시다.

-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까요?
- 오늘날 미술가에게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 작품과 작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작품 감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오브제
지연물, 공업 제품, 일용품 등이 작품에 제시되어 의미를 갖게 되는 물체를 뜻하며, 기성품, 레디메이드(ready-made)라고도 불려요.

플라주 기법이 유희를 대신해서 나뭇잎이 날으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거야.

다가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제 작품은 결국 저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저 자신과 소통하려면 우선 제 생각을 쉽게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단순한 제 작품이 누구라도 쉽게 소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니폼/들: 자화상/들: 나의 39년의 인생

6학년 1반 김예진

이 작품은 실제의 옷을 작품으로 설치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예전에는 자화상을 표현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리거나 만들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유니폼들을 입고 많은 시간을 보내니, 이 옷들이 우리들을 보여 주는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은 형태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작가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고 실제 교복을 작품으로 제시한 것 같다. 오브제를 설치하는 방식이 주제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보는 미술, 읽는 미술 89

3 감상 미술 작품 비평하기

교과서 88~90쪽

수업 목표	•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평가 기준	• 미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평가 방법	• 관찰법, 감상문(비평문)
준비물	• 교사: 참고 작품 자료 • 학생: 감상 작품

지도상의 유의점

- 예술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작가의 의도, 혹은 작품 자체에 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품과 감상자의 상호 작용 관계에 의해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감상자 스스로의 체험, 반응, 해석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론 중심이나 권위적인 수동적 감상에서 벗어나 감상자와 작품 자체와의 진지한 대화의 세계를 안내하는 감상 수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교수·학습 과정

들어가기

- 1 전시 관람 경험 이야기하기
 - T: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은 어떤 종류이며 어떤 점이 마음에 드나요?
 - S: 지난번 미술관 관람 시 미술관 밖에 설치되어 있던 작품이 신기했어요. 사용한 재료가 특이했어요.
 - S: 저는 작품에서 중요한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 S: 저는 색을 많이 화려하게 사용하여 아름답고 보기 좋은 작품을 좋아해요.
 - T: 오늘은 미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며 작품을 설명하고 판단해 보는 비평 활동을 하도록 하겠어요.

전개하기

- 1 작품을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의 특징 설명해 보기
 - ㉑ 백남준의 '피버 옵틱'을 감상한다.
 - T: 작품을 보고 받은 첫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 서로의 작품을 비교 감상하고, 감상문을 써 봅시다.

작품 1



작품 2



▲ 창매면 (학생 작품) 미디어의 불(우드라, 아크릴 물감, 필선, 인쇄한 종이 등/50×50×35cm)

▲ 최시원 (학생 작품) 태양 에너지를 만드는 푸른 나라, 아름다운 세상(종이에 아크릴, 펜/39.4×27.2cm)

- 작품 1과 작품 2 중 한 작품을 선택하세요.
- 작품을 감상하는 데 적절한 감상 관점을 안에 적고, 감상 내용을 써 봅시다.

①

→

②

→

③

→

- 스스로 평가하기**
- 감상
 -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감상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내가 쓴 감상문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S: 로봇 같아요, 모니터에서 여러 이미지가 비춰져요. 미술 작품인지, 혹은 과학 발명품인지 궁금해요.
- T: 사용한 재료와 도구, 표현 방법은 무엇입니까?
- S: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오토바이에 태웠어요.
- T: 작품의 형식이 주는 특징이나 느낌은 무엇입니까?
- S: 과학 발명품이나 로봇 같아요.
- T: 작품의 형식에서 어떤 시대나 사회적 배경을 찾을 수 있나요?
- S: 모니터와 오토바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작품이네요.
- T: 모니터 화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가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한 로봇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S: 빠름을 상징하는 오토바이와 영상 이미지로 빠르게 전달되는 정보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요.
- T: 이러한 표현 방법을 택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S: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 특징을 보여 주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 S: 작가는 오늘날의 특징이 미디어로 만든 영상 이미지

- 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재료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 T: 작품 내용에서 어떠한 시대, 사회적인 배경을 찾을 수 있나요?
- S: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방식이나, 속도의 시대를 표현하는 내용에서 우리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 T: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S: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와 영상 이미지로 작품을 한다는 것이 훌륭한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어요.
- S: 예술과 과학을 접목하였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 ㉠ 서도호의 '유니폼/들: 자화상/들: 나의 39년의 인생'을 감상한다.
- T: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였나요?
- S: 어떠한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벌의 옷을 옷걸이에 걸어 설치하였어요.
- T: 작품을 보고 받은 첫 느낌과 생각은 무엇인가요?
- S: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의 여러 옷을 늘어놓았는데,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새 옷을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 T: 사용한 재료와 도구,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 S: 작가가 39년간 입었던 교복, 군복, 정장 등의 유니폼들을 마네킹에 입혀 설치한 것이네요.
- T: 작품의 형식이 주는 특징이나 느낌은 무엇인가요?
- S: 아름답지도 않고, 형식이 주는 감흥은 별로 없어요.
- T: 작품의 형식에서 어떤 시대나 사회적 배경을 찾을 수 있나요?
- S: 이런 교복이나 군복을 입는 시대와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 T: 그러한 작품 감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가가 작품에 담은 주제 또는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S: 작가는 유니폼들을 통해 자신이 지나온 시간과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 S: 유니폼들은 우리 모두가 입는 것이니 유니폼들에 의해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해요.
- S: 아마도 유니폼들을 입게 하여 자유로운 개성을 억제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 T: 이러한 표현 방법을 택한 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 S: 그리기보다는 직접 설치하는 것이 더 실감 나기 때문인 것 같아요.
- T: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S: 우리들의 모습이 같은 유니폼들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표현한 것 같아요. 유니폼들이 우리들 각자의 개성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획일화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2 미술 용어를 활용하여 미술가와 작품에 관하여 토론하기

- T: 미술가들은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까요?
- S: 백남준은 새롭게 만들어진 비디오를 보고 이를 사용하여 작품을 하려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 S: 서도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품 속에 담고 싶은 내용을 찾았어요.
- T: 오늘날 미술가에게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 S: 작품에 담은 내용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 S: 새로운 재료나 사용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 S: 어떤 종류의 작품에서는 때로 제작 과정을 기술자에게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것 같아요.
- T: 작품과 작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작품 감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 S: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파악하게 해주므로 작품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게 해 주어요.

3 비평문을 작성하기

- ㉠ 감상한 작품 중 하나를 선정한 뒤 감상 내용을 종합하여 비평문을 작성한다.
- ㉡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분석 및 해석한 내용을 포함시키며 작성한다.
- ㉢ 비평문을 서로 바꾸어 읽고 자신의 비평문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본다.

4 친구들의 작품 감상하고 감상문 쓰기

- ㉠ 작품 1과 작품 2 중 한 작품을 선정한다.
- ㉡ 적절한 감상 발문을 적고 감상 내용을 적는다.

▶ 정리하기

- ㉠ 작품 감상에서 형식과 내용의 감상을 구분하여 본다.
- ㉡ 작가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 싶은 것을 메모하였다가 집에서 검색해 본다.
- ㉢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한다.
- ㉣ '스스로 평가하기'를 중심으로 단원 내용을 정리한다.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피버 옵틱(혼합 재료/206×147×224cm/1995년 작)

비디오는 특별한 처리 과정 없이도 녹화된 것을 즉시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대의 카메라와 모니터로 여러 이미지를 같은 시간에 녹화, 재생하며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에 매혹된 예술가들은 비디오를 사용하여 작품을 하게 되었다.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 기술을 이용하여 창조한 이미지만을 보여 주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비디오 모니터를 설치하며 이미지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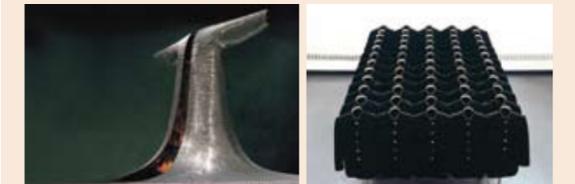
백남준은 비디오 설치 작품을 하는 작가이다. “콜라주 기법이 유화를 대신해서 나왔듯이 앞으로는 브라운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며 백남준은 비디오 아트를 창시하였다. 이렇게 그는 시대와 문명의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텔레비전 문화의 대중성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비디오 아트의 탐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작품은 2m가 넘는 높이에 여섯 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로봇이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형상을 보여 준다. 모니터 화면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합성으로 만들어진 영상 이미지가 빠르게 흐르며 시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보 사회를 상징하는 전자 이미지로 구성된 로봇이 산업 사회의 속도를 상징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형상은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를 잘 요약해서 보여 주는 듯하다.

피버 옵틱(Phiber Optik)은 1972년에 태어난 유명한 컴퓨터 보안 해커 Mark Abene의 가명이다.

서도호(한국/1962~) 유니폼 / 들: 자화상 / 들: 나의 39년의 인생(직물, 섬유 유리, 합성수지, 스테인리스 스틸, 옷걸이, 바퀴/254×56×169cm/2006년 작)



서도호(한국/1962~) Some/One(혼합 재료/800×700×216cm/2001년 작)

서도호(한국/1962~) 고등학교 유니폼 (교복, 스테인리스 스틸, 바퀴/150×216×366cm/1996년 작)

“다가갈수록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제 작품은 결국 저에 대한 성찰이에요.”

“우선은 저 스스로와 소통하기 위해 제 생각을 쉽게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와도 쉽게 소통할 수 있기 바라요.”

서도호는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각을 수학하며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해 왔다. 2001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작가로 성장하였다. 서도호의 작품 중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다룬 것들이 많은데, 이 작품에서는 본인이 39년간 입었던 교복, 군복, 정장 등의 유니폼들을 마 네킹에 입혔다. 이 유니폼들은 작가 자신이 지나온 시간이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수만 개의 군용 인식표로 이루어진 갑옷 형태의 'Some/One(2011)'과 수십 개의 유니폼을 획일적으로 나열해 놓은 '고등학교 유니폼(1996)' 작품에서는 익명의 대중과 주체의 부재를 통해 수많은 개인의 희생으로 만들어 낸 한국 사회의 역사를 암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최시원(학생 작품) 태양 에너지로 만드는 푸른 나라, 아름다운 세상(종이에 아크릴, 펜/39.4×27.2cm)

친환경적이며 무한한 태양 에너지를 만들어 자동차나 우주 로켓 등의 연료로 활용하는 장면을 표현하였다. 파란색 계통의 아크릴 물감으로 바탕을 채색한 후 건조하고 나서 흰색 물감과 펜으로 여러 가지 형상을 그렸다.

장예린(학생 작품) 미디어의 늪(우드락, 아크릴 물감, 전선, 인쇄한 종이 등/50×50×35cm)

컴퓨터, 텔레비전, 휴대 전화 등 미디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점점 중독되어 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가운데 사람을 세우고 전선을 꽂아 미디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H* 스스로 평가하기

-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감상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 ➔ 작품의 형식에 따른 감상 관점
조형 요소와 원리: 어떤 선, 형, 색을 사용했나요?, 조형 요소를 어떻게 배치했나요?
표현 방법: 어떤 재료를 사용했나요?,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떠한가요?
 - ➔ 작품의 내용에 따른 감상 관점
주제: 어떤 이야기이나 내용을 나타냈나요?
작가의 의도: 작품에는 작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나요?
시대 사회적 배경: 작품에 담긴 시대,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 미술 작품의 다양한 감상 방법을 설명해 보세요.
 - ➔ 단독 감상: 하나의 작품 또는 같은 요소나 특징을 가진 작품만을 제시하여 감상한다.

- ➔ 비교 감상: 둘 이상의 작품에서 내용, 혹은 형식 등의 비교 관점을 설정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감상한다.
 - ➔ 직관적 감상: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작용 없이 느낀 대로 작품을 감상한다.
 - ➔ 분석적 감상: 작품을 보는 관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분석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상한다.
 - ➔ 수용적 감상: 다른 사람의 해석이나 평가를 인정하고 비판 없이 수용하며 감상한다.
 - ➔ 비판적 감상: 주어진 정보나 의견을 그대로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감상한다.
- 내가 쓴 비평문에서 보충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 ➔ 나 자신의 해석과 판단의 내용을 보충하여야 한다.
 - ➔ 작품에 대한 글이 너무 단순하고 건조하므로 풍부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가. 그림에서의 형식과 내용: 보는 미술, 읽는 미술

예술 작품은 각 장르별로 독특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다. 미술 작품에서 내용이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고 형식이란 이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내용에는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나 사회, 문화적인 배경, 혹은 작품을 하는 작가의 의도 등이 해당된다. 형식은 시각적인 측면으로 선, 형, 색, 질감 등의 조형 요소나 통일, 균형, 비례, 대칭, 율동 등의 조형 원리의 구성이다. 작품의 소재는 형식과 내용에 공통적으로 연계된다. 내용은 눈으로 보는 것 이기보다는 읽혀져야 하는 요소이다. 말하자면, 작품의 형식을 보며 지적으로 작품 뒤에 있는 의미를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술 작품은 '보는 것' 이기도 하며, 또한 '읽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한 미술 작품을 볼 때는 작품의 형식에 의해 감성적으로 끌리며, 작품의 의미를 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작품에서 더 큰 매력을 발견하고, 그러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예술은 아는 만큼 보이고, 관객이 작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박휘락 저,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교육, 시공사, 2003.
이월중 미술관 <http://walartmuseum.or.kr>
백남준 아트 센터 <http://www.njpartcenter.kr>



보는 미술, 읽는 미술



미술 작품 비평하기

교과서 88쪽

미술 작품 비평하기

_____학년 _____반 이름 _____

- 교과서 88쪽에서 한 작품을 선택하여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고, 미술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설명해 봅시다.

• 이 작품은 무엇을 표현하였으며, 작품을 보고 받은 첫 느낌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 작품은 어떤 재료와 도구, 표현 방법으로 제작되었나요? 그러한 형식에서 어떤 시대나 사회적 배경을 찾을 수 있으며, 이 작품의 형식이 주는 느낌과 그 특징은 어떠한가요?

-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며, 작가는 왜 이런 방법으로 표현했을까요? 또, 작품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시대, 사회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이 작품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비물

교사

서도호의 '유니폼/들: 나의 39년의 인생', 백남준 '피버 옵틱' 작품 감상 자료

학생

활동지, 필기도구



평가 방법

감상문



경천사지 10층 석탑(높이: 13.5m/고려 시대)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다다익선(텔레비전 수상기 설치/1988년 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1348년에 세워진 고려 석탑이다.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수리 부소산 경천사 터에 있었으나 일본에 빼앗겼다 되돌려 받으며 경북궁에 세워 졌으며, 다시 국립 중앙 박물관으로 옮겨졌다.

‘다다익선’은 국립 현대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으로 10월 3일 개천절을 의미하는 1,003개의 텔레비전 모니터로 이루어져 있다. 각 모니터들은 한국의 근대사와 전통문화, 서울 올림픽과 관련한 영상들을 보여 준다.

생각 쑥쑥
예시 답안

각자의 감상 관점을 가지고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다다익선’의 특징과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아요.

Q 재료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은 어떤가요?

A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고전적이고 엄숙한 느낌을 주지만, ‘다다익선’은 텔레비전을 이용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계적이고 신기한 느낌을 줍니다.

Q 표현 방식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은 어떤가요?

A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탑 전체에 섬세하게 조각된 모습이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다다익선’은 텔레비전 모니터에 비치는 영상이 시시때때로 바뀌어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좁고 높게 쌓아 올린 모습이 날씬하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데 반해, ‘다다익선’은 네 층으로 나뉘어 점점 좁게 쌓아 올려져 좀 더 단순하고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Q 표현 의도에 따른 특징과 차이점은 어떤가요?

A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불교의 힘으로 왕실과 나라, 국민이 모두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탑 전체에 부처와 불교에 관한 조각이 새겨져 있고, 엄숙한 느낌을 줍니다. ‘다다익선’은 한곳에서 방영한 영상을 많은 곳에서 청취할 수 있다는 대중 매체의 원리를 드러내어 현대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